朝鮮日報
夕刊 二十七日(火)
本紙朝夕刊二十二面

呼吸器病專門 人工氣胸及新式治療法 李喜儆內科 京城仁寺町一三六 電光一五九九番

最後通牒期間內에 北平居留民을撤去
全部大使館區域에移來토록
我大使館에서正式發令

에잇은 卅七師의 撤退期限은 本卅七日 正午까지인데 今日까지의 卅九軍의 態度는 暴戾不信不誠意한 行爲로 彼等이 期限까지 撤退치 안흘것은 勿論이며 도리혀 北平城內에 如何한 不祥事가 勃發할지도 全혀 豫測할수업스므로 我大使館에서는 居留邦人의 生命財産의 萬一을 顧慮하고 卅七日午前五時半에 居留民會에對하야 本日午前中에 東交民巷에잇는 大使館區域으로 急遽全部移轉하도록 命令하엿다 北支在留邦人이 大使館區域에로의 移轉은 實로 北淸事件以來 처음되는일이다 (寫眞은 北平市街)

【北平廿七日發同盟至急報】我大使館은 在留邦人의 生命財産의 萬一을考慮하야 二十七日午前五時居留民會에對하야 本日午前中에 交民巷大使館區域으로 邦人全部를 移來하라고 正式發令하엿다

【北平廿七日發同盟】我軍의 最後的通牒에 依하야 北平城內

居留民三分一集結完了
朝鮮人은舊墺國兵營에集結中

【天津二十七日發同盟】北支의情勢不安때문에 北平在留邦人은 二十七日午前中에 日本大使館、橫濱正金銀行支店、日本警察署의三個所에 全部集結하도록 手配中이다 또在留朝鮮人同胞는 前오ー스토리아兵營에 集結中이며 午前九時頃까지 在留民의 約三分一은 集結을終了하엿다

緊急閣議서 決定
最後的重大決意에對한 中外에聲明發表키로

【東京電話同盟】北支情勢의 重大化에伴한 緊急臨時閣議는 二十七日早朝에 召集되여 午前八時十分부터 近衛首相、杉山陸相、米內海相以下各閣僚等參集하야 會議를 開始하엿다 杉山陸相은北平廣安門事件勃發及 其後의 情勢를 現地報告에基하야 詳細報告하고 다시 陸軍首腦部에서 同日午前六時부터 一時間에 亘하야 協議를 遂한結果 陸軍의重大決意를 披瀝하고 各閣僚의 諒解를 求하엿다 米內海相은 支那各地의 居留民保護狀況及今後方針에對하야報告하고 다시大藏、外務兩相으로부터 今後重大時局에 對處할 政府의 方針에 對하야 所信을 述하고 旣定方針에 基하야 臨機의 處置를 講究하기로 決定하엿다 그리고 正午院內에서 臨時閣議를 開催하고 政府의 態度를 中外에 闡明하기爲하야 政府의 聲明을 發表하기로 協議하고 同九時四十分에 散會하엿다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北支事變의 全面的重大化에 鑑하야 二十七日午前八時三十分부터 緊急閣議를開하고 杉山陸相으로부터 北支情勢及 이에對處할 陸軍의緊急措置에對하야 報告를 바덧는데 다시正午부터 院內에臨時閣議를 開催하고 帝國의最後的重大決意를 披瀝한 聲明을 中外에 發表하기로되엿다

閑院總長宮殿下 宮中御參內

【東京電話同盟】閑院參謀總長宮殿下께서는 廿七日午前十時十分 宮中에 御參內하야 天皇陛下께 拜謁하시고 所管事項을 御奏上하야 種種御下問에 奉答하신後 御前을 退下하시엿다

杉山陸相參內

【東京電話同盟】杉山陸相은 二十七日緊急閣議에서 報告를終하고 午前九時二十五分 即時宮中에參內하야 天皇陛下께拜謁하고 北平廣安門事件 其後의情勢及이에對處하기爲하야 同日朝陸軍首腦部會議에서決定한 最高方針에 對하야 委曲奏上하고 種種御下問에 奉答한後 御前을退下하야 陸軍省으로 歸還하엿다

【北平二十七日發同盟】廣安門事件은 第二十九軍兵士의徹底한抗日意識과鬼畜과가튼暴虐性을遺憾업시 我等眼前에展開하엿다 即支那軍의最初의射擊이 非戰鬪員인 新聞記者에게集中되는 擬擧等의暴戾는이에그치지안코 櫻井顧問이非戰鬪員으로 일부러便服을着用하엿슬뿐더러 支那側과의連絡에當한 軍使의任에當하엿고 또는二十九軍의軍事顧問의職에잇는 人物임에不拘하고 猛射를加한것은 全然鬼畜以上의 暴戾인바 我軍當局은 支那側의 곳칠줄모르는 暴虐行爲에는 絕對反省을 期待할수업다 不法不誠意를 極한것이라고보고 我方 從來의 和平解決 不擴大方針은마침내 最後的 希望을 斷하야重大決意下에 暴虐한第二十九軍에게 最後的『斷』字를不得已下하게될것을 痛憤케한다

和平解決과不擴大方針 最後的希望斷絕
事態는重大決意할頂點到達
駐屯軍司令部大緊張

駐屯軍死傷十名

【天津廿七日發同盟】支那駐屯軍司令部午前六時發表 廣部部隊의 一部는 二十七日 午前二時頃 北平城內에 到着하엿는데 將兵의 戰死四、負傷二名 第二十九軍顧問川村通譯戰死 同櫻井少佐負傷入院 同盟通信社三木寫眞部員重傷 同寫眞班 八住映畫部員의 輕傷을내엿다

定例局長會議

總督府定例局長會議는 二十七日午前十時十分부터 第三會議室에서開催 먼저藤村陸軍御用掛로부터 北支의現況 東鄉海軍御用掛로부터 南支方面의近況을 各其報告하고 뒤이어吉田鐵道局長은 事變에依한鐵道의 貨客運輸狀況은 多少觀光客이 減少되엿스나 全體的으로는平常과變함이업다고述하고 各局長으로부터 所管事項에關하야 報告가잇슨後 南總督은 이緊張한 時局에서는 宗敎團體 敎化團體等이 가장活動하야 그機能을 發揮할 好機會임으로 아직活動을開始하지안흔團體에 對하여는 크게 自覺을 促하도록 努力하라고注意 最後에 井坂文書課長으로부터 情報委員會幹事會의 決定事項을 報告하고 同十一時二十五分에 散會하엿다

和知參謀歸任延期

【東京電話同盟】陸軍中央部와協議키爲하야 滯東中인 和知支部駐屯軍參謀는 二十七日에 歸任할豫定이엿스나 定期航空便의欠航으로 歸任을 延期하엿다

通州駐屯部隊를 斷平膺懲攻擊、此를殲滅

【天津廿七日發同盟至急報】萱島部隊는 通州駐屯第二十九軍部隊에 對하야 二十七日아침부터 斷平膺懲攻擊을 加하야 午前十時 거이 이를 殲滅하엿다

川村通譯戰死 軍屬二名行方不明

【北平二十七日發同盟至急報】櫻井顧問과 同行한 川村通譯은城壁에서 第二十九軍의 射擊을 制止하기에 努力하드니 支那兵의 毆打와、피스톨射擊을맛나 마춤내壯烈한 戰死를 遂하엿다 그리고吉富、齋藤兩軍屬은 今朝까지 歸還치안어 行方不明이되엿는데 그들의 安否는 자못憂慮된다

【北平廿七日發同盟】櫻井顧問의 負傷은 左大腿部의 貫通銃創으로 川村通譯、吉富、齋藤兩軍屬과 함께 最後까지 城壁上에서 廿九軍의射擊을 制止하기에 努力하엿스나 情勢一層惡化하야 危險을感하게되엿슴으로 마침내 노피十米이나되는 城壁에서 內側으로 飛降하엿다 그때城壁上으로부터 支那兵의狙擊을 바더 左大腿部에 銃創을 입고 右足을 捻挫하야 負傷하엿스나 元氣이다

廣安門事件內容
◇陸軍省에서發表

【東京電話同盟】二十七日午前一時十五分陸軍省發表 北平에入城命令을바든 廣部部隊는 二十六日夕刻支那側의 諒解下에 廣安門을 通過하야 城內에 進入하려하사 支那軍은 部隊의三分之二를 入城시켯슬때 突然門을 閉鎖하고 이에猛射를 加하얏다 我에 多大한 損害가잇는 模樣이나 其後門內의 情勢는不明하다

支那兵八百武裝解除

【天津廿七日發同盟】我軍은 二十九軍과의 親善關係에 鑑하야 停戰協定違反에도 不拘하고 第二十九軍獨立第三十九旅十營約八百名의通州駐屯을 默認하엿스나 我方의 撤退要求에 對하야甚히 無禮한 態度를 取함으로 萱島部隊及 冀東保安隊는 今曉三時頃同隊를 武裝解除하엿다

戒嚴令下의北平
死의街化
衛門을모다閉鎖

【北平二十七日發同盟】午後十時부터 再次 全市에 施行된 戒嚴令미테 支那人運轉手를 激勵하며 記者는 途中數回나 公安隊員에게 審問을當할때마다 通行證을 보히고 겨우 警戒線을 突破하야 內城을 들어서니 사람이라고는 一人도通行하지안는 市街는 全혀 死의街로 變化하고말엇다 邦人旅館은 이미 非常召集을 바더 大使館 其他 關係官衙는 籠城準備에 忙殺되여잇다 記者는 모리슨街에서 마침내 二十九軍兵의 嚴重한身體檢査를 當하야 狼狽를맛보고 겨우釋放되여 午前一時지나 無事히 歸社하얏다

豐台天津間의 軍用線또切斷

【天津二十六日發同盟】豐台天津間軍用電線은 我方의 修繕으로 一旦復舊되엿섯스나 二十六日午前九時頃부터 又復支那兵에게切斷되여不通되엿다

【天津二十七日發同盟】日本租界와支那街各通路에通하는 衛門은全部 閉鎖되여 警戒는 가장 嚴重하다

日銀總裁更迭
結城前藏相이新任

【東京電話同盟】二十七日臨時閣議에서 日銀總裁更迭을 左와如히決定하엿다
任日本銀行總裁 從三位勳五等 結城豐太郎
依願免日本銀行總裁 池田成彬

八面鋒

◇六大洲 五大洋을 좁다하는 國으로알고 商業 曲藝 行商을 職業으로 삼는 『집시』의 一群。
◇얼마前 波蘭地方에 모히어 一大(?)王國을 建設키로決議하고 國王까지推戴하엿스나、
◇國家形成의三大要素中하나인 國土가업스니 어데가서 理想鄕을建設할수가잇스리오。
◇百面思之하든끄테 一計를어드니、伊太利首相에게 懇請하야 에디오피아 의一部를 베어달라고。
◇무首相、人情男兒다면『에라그래라』할는지도 모르나 這間의 消息은 아즉 不明。
◇『런던·뉴ー스』의 記事一節을 紹介하야 夏夜의 話題나삼을가。

北支派兵目的은 東洋平和의維持
近衛首相施政方針演說

【東京電話同盟】特別議會劈頭에 行한 近衛首相의 施政方針演說은 左와如하다

第七十一回 帝國議會에當하야 政府의 所信을 말하게된것은 余의가장光榮으로 역이는바이다 참으로 多事多難한 時局에際하야 豫測하지안흔 大命을拜受하고 重한責任을 지게된것은 恐懼不堪하는바이다 政府는 其重責을다함에當하야 玆에 基本精神을 明確히하려고한다

그것은 百般의政策을 我尊嚴한國體의 精髓에歸一하는데잇다 이精髓의發露는 밧그로는 國際正義에基하야 列國과함께 참된社會平和의 確立에 힘을다하야 益益國威를宣揚함에잇다 이것을 國內로 보면 大義名分을 明確히 하고 社會正義에 則하야 國民으로하여금 各其本分에따라 國運의發展을 圖하는데잇다 이方針미테서 諸般政策의 樹立遂行을 期할려고한다 一時紛糾를 釀成한對蘇關係도 無事히 落着되엿스며 列國關係도 最近 益益親善의度를 加하여왓는데 불行히 今回支那에서 事變의 勃發된것은 참으로 遺憾이다 政府는 不得已 重大한決意를 發表하엿거니와 多幸히各方面으로부터 擧國一致의 支援을 어든것은 참으로感謝하는바이다 勿論今回派兵의 目的이東亞의 平和維持에잇슴은 過日中外에 聲明한바와갓다 支那政府와밋國民의自省自立에依하야 日支兩國間의 國交가 速히 根本的으로 調整되기를 衷心으로 希望하고잇다 現下 內外의情勢에 鑑하야國防의充實과 經濟力의 發展을圖함은 가장 急務이다 여기서 이國策遂行의 基礎的手段으로 生産力擴充、國際收支의 適合及 物資需給의 調整을主眼으로한 綜合的計畫을 樹立함이 必要하다는것을 痛感하는바이다 더욱 이計畫은 日滿兩國을 一體로하는 見地에서 具體案을 作成하도록 考慮하고잇다 其他의 行政機構와및 議會制度改革을 비롯하야 各般政策에 關하야서는今後檢討에依할것이 적지안흐나 그中에는 成案을 어든것도잇스며 或은 調査研究를 開始한것도잇다 例컨대 保健社會省에 關한것은 이미 設置方針도 確立되엿슴으로 이에必要한 豫算을議會의 協贊을要望하게되엿다 敎育에 對하여는 國體의本義에則하야 敎學의根本을 確立함이 現下의情勢에 鑑하야 極히 緊要한일로생각한다 그리고學制改革과 如한것은 短時日間에 이를實行하기는 至難함으로 敎育審議會를 設하야 愼重審議하려한다 近時我國은 漸漸興隆하야益益發展의 實을擧할試鍊의 一過程에잇다 따라國力의 飛躍的發展과 이에伴하는 革新的諸政策의 遂行에 國民諸君이 크게發奮하고 크게 忍耐하야 各其全能力을 傾倒하야 相互協力 이에當하지안흐면 効果를收할수업슬줄안다 國內對立抗爭의 摩擦이잇스면到底히所期의目的을 達成하기困難한것은勿論 나아가서는 外侮를招致할念慮가잇슬줄로생각한다 그리므로余는組閣에當하야 可及的國民協力의 實을擧할 方針을取한것이다 政府는 所期한바와如히協力一致의精神에基하야 改革할것은 自進 이를改革하고 日新又日新하기를 期하려한다 그리고從來解決困難한諸問題와 如한것도 順次로이를解決하여가려한다 如斯한 생각을 갓고잇스나 今期議會는 組閣匆匆한 議會임으로 御協贊을願할案件은 前議會에서 審議未了된 一部와 緊急을要하는것에곳치게한데大略政府의 眞意를 明白히하엿거니와 時艱을克服하고國力發展을圖함에는 一一히諸君의御協力을希望하지안흐면안될것임으로 右諒察하고支援하여주기를 切望하는 바이다

北支事變에對한 陸相의演說要旨

【東京電話同盟】陸軍大臣의說明 今回事變勃發以來國民各位의 熱誠잇는 後援으로 擧國一致打開에 全力을다하는것은 衷心으로 感謝不堪하는 바이다 我駐屯軍은 事變發生以來 居留民의 生命財産保護에 萬全을 期하고잇스나 遺憾인것은 居留民으로不法抑留 家宅侵入掠奪等壓迫侮辱을兼한것이 不少함으로 一般人心은憤慨한것이다 今回事變은由來 即民衆의抗日侮日運動 南京政府의徹底한 抗日政策에 基하는것은 勿論 近年 國內統一의 强化와 軍備改善으로 自力을 過信하야 上海事變當時에 比하야 相當히 堅固한 根底를 갓고잇는줄안다 이形勢는 近時 我國과 極히 緊密한 關係를갓고잇는 北支方面에도 波及하야 最近 平津其他各地에서 屢屢在留邦人과 帝國官憲에 對한 暴行侮辱事件을 惹起한것도 이抗日運動의 表現으로 今回事變도 또한 其遠因이 여기에잇다 今回事變은 北平의 西南郊外로 昨年가을에도 事變이 惹起된 豐臺에近接한 支那軍의 我軍에 對한 侮辱事件이 이러난곳이다 盧溝橋는 豐臺西方一里內外에 잇는곳으로其北側平地는 我駐屯軍이 恒常演習하는곳인데 七月七日夜 我駐屯部隊의 一部가 이곳에서演習

當實施하엿든것이다 當日河邊部隊長은 山海關에出張하고 北平部隊에잇든部隊는 北平의東方約四里에잇는 通州에서 夜間演習을實施하엿섯다 그런데 意外에 芦溝橋北方地區에서 演習中인部隊는 夜十一時四十分頃 支那軍으로부터 突然射擊을밧고 該部隊는 即時이에應戰할 準備를하는同時에 上級部隊長에게 報告한바 部隊長은 部下를거나리고現地에달려가 應急對策을 講究하엿다 牟田口部隊長은 其部隊의殘部를 北平東側地區에 集合하고 森田中佐로하여곰 支那側委員을 訪問케하야 蘆溝橋事件의謝罪와 事實의 承認其他交涉에當케하엿다 그런대 支那軍은我方의 當然하고 公正한要求에 應하지안흘뿐아니라 도리혀 敵對行動을取하야 無法하게도八日午前五時再次我에게 迫擊砲及小銃의 射擊을 加함으로 豐臺部隊는 不得已龍王廟附近의 敵을擊退한後 午前七時頃부터主力으로 蘆溝橋附近의 敵과서로對峙하게 된것이다 事態 이에 이르러 我駐屯軍은 事件不擴大方針下에 支那側과 數次交涉을거듭하고 各部隊도 또한上司의指示에基하야 彼等의 挑戰을避하야隱忍自重하면서 其行動을 監視하엿는바 九日午前二時에 이르러 支那側은 겨우我要求를 容認하고 午前五時를 期하야芦溝橋에잇는 部隊의 撤退를 約하엿다 그런데 定刻에이르러도何等撤退의 模樣이업고 도리혀그兵力을 增加하야 監視中의 我軍에 對하야 屢次射擊을 加하엿는데 我軍의 嚴重抗議結果九日午前零時十分에 이르러 永定河 右岸即西方에 撤退함에이르럿다 따라서 十日芦溝橋附近永定河對岸의 支那軍은 再次早朝부터同地附近에잇는 我監視部隊에對하야 屢次射擊을加하고 午前五時너머서부터 各百名內外로된敵은再次砲兵의 掩護射擊下에 攻擊하여왓슴으로 當該部隊長은 敢然逆襲을取하야 多大損害를加하고擊退하엿다 自後第一線에 큰衝突업시 그대로態勢를 維持하면서 交涉을 거듭한터이다 此間中央當局은 오로지 事件不擴大方針을 堅持하고어데까지 平和에 事態를 收拾키를期하고 局地的解決에 努力한터이나 支那側의 誠意를認할點이업고 北平에서의彼我의 交涉은 조금도進捗못되고 十一日朝에이르러 我要求를 全面的으로 拒否하고 平和解決의 希望은 斷絕되고도西苑附近에잇든 三十二師의 主力은 南下하야 八寶山에集結하고頻繁히 第一線兵力을 增加하고 一方南京政府는 國民의抗日意識昂揚에努力하든同時에 飛行諸隊에出動準備를命하고 中央軍其他에 北上準備를命하는等 挑戰的準備를進行함에 이르럿다。 以上述한바와如히 今次事變은 全혀 支那側의抗日侮日計畫的行爲임에疑心할바업는터로 北支의 治安維持가 帝國及滿洲國에 緊要함은 말할것도업는바이며 極히 支那側에서 不法行爲排日侮日行爲에對한謝罪를하고 今後再次如斯한行爲를안할것을 確約保障함은 帝國의 威信上밋東洋平和의 維持上 極히必要한바로 政府는十一日緊急閣議에서 派兵을爲한 所要의 措置를講하고 爲先關東軍의 一部朝鮮及內地에서 所要의 兵力을急派키로 決定한것이다。 그런데 支那側은 帝國政府의 斷乎한決意와 國民一致의 熱誠한支援을알자 俄然그態度를 變更하야 我要求를容認하고 同日午後八時 第二十九軍代表는解決條件에調印하야 事件은急速解決할과가티 보엿다 그리고그解決條件은

一、支那軍의 蘆溝格附近 永定河左岸에 駐屯停止
二、將來에對한保障
三、直接責任者의處罰
四、謝罪

의四個條이다 此間 支那軍의 不法 射擊은 依然히 斷續的으로 各所에서行하고 又 中央軍의 移動北上等 不絕히 行하엿스나 我方은 오히려 隱忍自重하야 事件 不擴大方針을 堅持하야 支那側의 反省에依한 事態의 平和的解決을 急行하엿다。 十八日에이르러 宋哲元自身은香月軍司令官을 訪問하야 陳謝의 意를 表하엿다 十九日에는 又復小銃迫擊砲로써 我方에 射擊을加하고 我軍은 數名의損傷을 生하는等 突發事件은 不絕하야 約諾實行의誠意를 認할수업슴으로 駐屯軍은 自己의 決意에 基하야『支那側으로써 不信行爲를 反覆함에잇서서는 二十日正午以後는 軍은 自衛上獨自의行動을取하겟다』고 彼方에通告하고 約諾의 確實한履行을 嚴重監視키로되엿다 이駐屯軍의 峻嚴한態度에 對하야 彼方은 十九日午後十一時 約諾實行에關한 最後的協定調印을 要請한바 이最後協定은 從來項目外에

一、日支國交를阻害할人物의排除
二、共産黨의徹底的彈壓
三、排日的各種機關諸團體及各種運動밋 이原因으로될 排日敎育의取締

等三項目 그리고 따로第三十七師를北平에서 他處로移駐하는旨를 通告하여왓다 그런데 二十日朝에는 또다시數回迫擊砲로써 我를射擊하고 同日午後二時三十分에는 蘆溝橋及 八寶山附近에서 我部隊에對하야 盛히 砲小銃火를加하야 我軍도다시 膺懲하는意味로 猛烈한砲擊을加하야 即時이를 沈默케하엿다 其後에는 그들은자조斥候를 派遣하고 不法射擊等을 繼續함으로 我方은마침내 이를膺懲 擊退하는同時에依然 彼의行爲를 嚴重監視한結果 彼는軍隊의 撤收其他逐次約諾을 實行하는듯시 보혓스나 그러나 支那側의 不信行爲에는 從來자조苦杯를 맛보앗슴으로 何時에如何한 變을 生할는지 豫斷을 不許함으로 旣定方針으로堅持하는同時에 嚴重支那側의 約諾履行을 監視하야 狀況의 變化에 應할目的으로 萬般遺憾업시하기를 期하엿든바 二十五日夜 北平天津中間에잇는郞坊에서 軍用電線修理中의 我部隊에對하야 又復無謀한 急襲射擊을 加하야왓다 이에我駐屯軍은 地上空中部隊를 急遽赴援케하야 彼에게 甚大한射擊을加한바 彼는忽然四散하엿다。 以上과如히 相次反覆되는 支那側의 不法挑戰에 鑑하야我駐屯軍은 昨二十六日不得已期限付約諾履行을 彼에게 强迫하엿다 그런데 彼는 昨夕冀察側의諒解下에 北平西側 廣安門으로부터入城하는 我部隊에對하야 突然城門을閉塞하고 不法하게 我를攻擊하야 不少한損害를 發生케하엿다 政府는 如斯한 武力妨害로 我居留民保護나 北平、天津間의 交通線確保도 危殆에陷하야 我駐屯軍은 이미隱忍을不許하고 其任務遂行及 自衛上、斷乎 彼를膺懲하기로 決意하고 陸軍當局도 또한이에應할 重要한措置를 取하기로 決定하엿다 今後에는 狀態容易히逆睹키難할뿐아니라 我國을中心으로한 全般의時局은 益益緊迫을加하고잇다 此際、諸君의御協力과御支援으로 擧國一致의熱情이 益益昂揚持續되여 時局克服을 實現하기를 邦家를爲하야 懇이 祈念하야마지안는바이다。

腫症에는 三仙膏
京城鍾路 共生藥業株式会社
電光園2547(夜間及休日通用) 1745 振替京城22002

恩給 最長期及短期共 恤低利 地方人士의取引은特別有利敏速히應
京城鍾路二丁目七七 鄭商會

松の實キャラメ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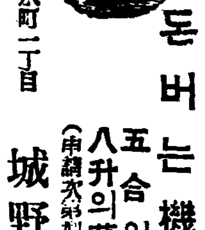
新製品인機銃라디오로써時報를드르시라
ナショナル受信機（新製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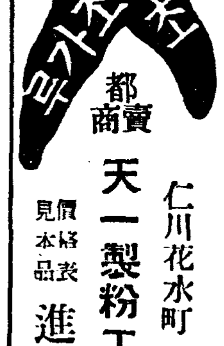
正價	Z—2	四球	23.00
	Z—3	四球	37.00
	R—25	四球承	33.00
	GR—40	四球(蓄音機兼用)	150.00
	5S—2	五球(スパー)	120.00
正價	マーツ電氣扇	12吋略	26.00
	マーツ 〃	16吋	35.00
	AR—52	五球	95.00
	AR—53	五球	115.00

高級ラヂオ 電氣器具 卸商 東一電氣商會 ◎地方注文은 要先金三割
京城仁寺町一八五六 電光(3)一六八六番 振替口座京城二六五〇三番

相思九百里
HIS MASTER'S VOICE
날두고진정참말
빅다ー
朴丹馬

(商標登錄) 泉州及物鋏專門
大阪市天王寺區生玉前町九三番地
正三屋製鋏所

リード式

돈버는機械 五合의쌀이 八升의菓子가된다 (申請次第說明書進呈)
釜山府寶水町二丁目 城野製作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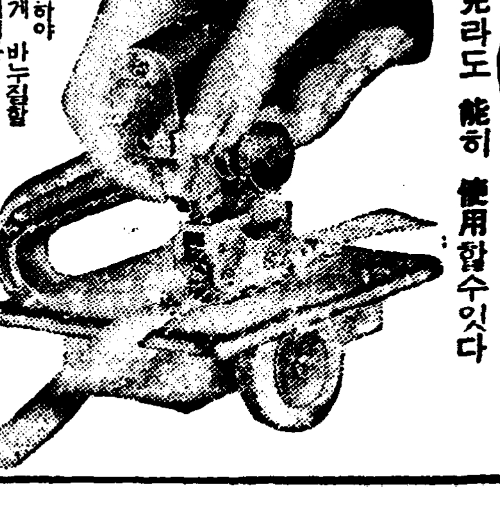
商標

都賣商 天一製粉工場 仁川花水町 價格表 見本品 進呈

急募
一、機械部職工 一、設計製圖工 一、鑄物熟練工 理論實地兼得한者 若干名 同上 若干名
右急募함니다 希望者는 寫眞添付自筆履歷書送付하시오 面會日 通知함(要保證人)
京城府永登浦町 極光發明品 製作發賣元 極光工業株式會社 電長五一一番

로이히 ロイヒ膏

一分!二分!!三分!! 食ー食滲透하는 藥의作用
肩凝 胃痛 腰痛 打撲 神經痛 齒痛 로이마치스 運動後의 筋肉疲勞
各地藥房에잇다 東京品川 株式會社 歌橋製藥所
十枚入 廿錢 十七枚入 三十錢 卅枚入 五十錢 七十枚入 一圓

金銀 地金分析賣買 小口專門 水谷金銀舖 京城黃金町黃金座前

裁縫ミシン

◉朝鮮의裁縫을機械化하야大發明하얏다
△七세의 小兒라도 能히 使用할수잇다
・아모리서투른사람이라도 어린아해나 극히간단하야 자미잇게 바누질할수잇는 朝鮮裁縫미싱이다
大特賣 (普及附)(一台代金)……三圓八十錢
製造元 名古屋市西區傳馬町三丁目 東西商事社 電話本局七八〇・四五二六番
【特約店大募集】

各道道知事에게 南總督重大通牒
民衆에게時局認識을徹底케 = 流言蜚語를嚴重警戒

현하한북지정세를사고도든 비상시국은 국히침통함안되하야 일반민심을 동요하게할여러가업지 아니함으로 시국인식의 철저와 각성을환기하고자 관민이서로련락하야 강연、기도、기원기타여러 가지형식으로 적극적노력을계속 하야오는중이데 이십륙일남총독 (南總督)은 각도지사에게 다음 과가튼 내용의 통첩을 발하야 일반민중의각성을 일층더환기하 도록하얏다

최근비상시국에대처 하기위하야 경성기타 각도시에서는기독교(基督敎) 천도교(天道敎) 시천교(侍天敎)불교등 각종교단체가 비상한 활동을계속하고잇는즉 이때각지에 산재하야잇는 대소단체로하야금 비상시국에대처하는 맹렬한활동을 행하도록 소관당국에서지도장려하야 일반민중이 시국인식을 철저케하라 최근 류언비어(流言蜚語)가 각지방에 성행할 모양인데 이것이 대개각지방 여러단체의 활동이 부족한 관게로 시국인식과각성에부족한까닭이즉 이또한적절타당한수단과 방법으로써활동케하야 민중으로하야금 각성을 환기하는동시 류언비어를 엄중히취체하야 (경무국에서는 실시중) 민심의 동요가업도록 하라

이와가튼 엄중한통첩을 발하야 비상시국에 선처케하얏는데 시국에대하야 총독명의로 통첩하기는 이번북지사변 발생이래처음이다

時局講演放送
今夜三橋警務局長으로부터

시국의 중대한에 비치여삼교 (三橋警務局長)은 이십칠일오후 일곱시반DK마이크를통해서전조선민중에향하야 웨치게되엿는바 그내용으로는 금번북지사변의 돌발로 중대한시절을 당면하야 사변발생 지부터 가장갓가운 총후에로서게된 우리들로서는 항상 대국민의 금도로 유언비어에 유혹되지말고 시국의 추이를 정당하게 인식하야 각기직업에 안정하고 내선일체대동단결에 매진함이 긴요한일이다 이가튼 비상시에 조선경찰에 봉공하는자로는 그책임의 중한것을 알고 전원일체치안에 당하야 총후의 불안을 업시할것과함께 박그로는 황군의 위력을밋고 안으로는 경찰을 힘입어 경거망동을 경계할것이다 (사진은삼교경무국장)

放送局서도 防護團結成

조선방송협회(朝鮮放送協會)에서는 적국의비행기가 엄습해올 만약의 경우에곳닐리 일반민중에게 경보를 전하여야할『라듸오』의중대사명을 중시하기위하야 이번에 특설방호단(防護團)을조직하고 본부(本部) 소방반(消防班)구호반및 연락반(聯絡班)으로나누어 보관(保阪)상부리사를 단장으로 협회원오십명을 각반에 배치하야 정동정(貞洞町)고대에 오둑 소서잇는 그협회본부와 오십『키로』십『키로』의 강력전파를 전조선으로 보내는 연희방송소를 사수키로되야 불원간 결단식(結團式)을 거행하고 맹훈련을개시키로되엿다

各宗教團體聯合主催 時局講演會盛況
昨夜中央基靑會館서

북지풍운이 날로 긴박하야감을 따라 종교단체로서도 크게 여론을 이르켜 일반의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잇다고하야 불교 야소교 천도교등 부내 각종교 단체가 련합주최로 어십륙일밤 여덜시부터 부내 종로중앙기독 청년회관(中央基靑會館)에서 시국대강연회를 여럿는데 회장은 초만원의 성황을 이루엇고 동열시반 무사히 폐회하엿다 그리고 이날밤 열변을토한 각종교 단체대표자와 연제는다음과갓다

▲東洋平和의根本策 天道敎新派 李敦化 ▲時代覺醒의必要性 佛敎 權相老 ▲吾人의取할態度 監理敎 梁柱三 ▲今日我等의任務 天道敎舊派 李鍾麟 ▲東西大局과吾人의覺醒 儒敎 安寅植 ▲太陽은蒼空에놉히떳다 長老敎 全弼淳

入營家庭차對 朝鮮人의好意

한강건너 명수대(明水臺)근처의 조선사람부락에사는대도근일 (大渡近一)이라는이가 얼마전에 응소(應召)하엿는데 그동리 조선사람들은 매일그의집에 차저가서여러가지 선사를하므로 그의가족은 예조선동포들의 호의에 감읍하고잇다한다

國防獻金遝至
和信朴興植氏 五千圓 社員들도醵金

북지풍운이 또다시 전면적으로 험악하게됨이시작되자 부내종로화신(和信)백화점사장 박흥식(朴興植)씨는종로서를차저와다음과가튼거액의 국방헌금을 내노앗슴으로 동서에서는 그의열성에 감격하야 곳헌납수속을취하엿다

一金五千圓 和信社長朴興植氏
一金一千二百六十一圓五錢 和信本店員一同
一金五百五十一圓八十錢 和信連鎖店本店員一同
一金一百八十七圓四十錢 大同興業會社員一同
一金六十五圓五十錢 鮮一紙物舖

◀이십칠일 동대문서에 들어온 국방헌금은 다음과갓다
▲一金百圓 國防獻金 鍾路町 ▲一金二千圓 出征部隊慰問金 同人 ▲一金百圓 國防獻金 城北町一九六 田邊治三郞 ▲一金十圓 出征部隊慰問金 下往十里町八九〇의五李重九

◀부내 욱정(旭町)국방부인회 제십일분회에서는 회원의집과또는 정내의폐물을 모아서 팔아 적립한돈가운데서천원은 조선방공비로 백원은 상병병(傷病兵)위문금으로 써달라고 이십칠일에 조선군사령부에 바첫다

◀부내 어성정(御成町)애국부인회에서는 이주야동안돈을 거두어서 어십칠일에 칠백칠십오집전을 조선군 사령부에 바첫다 ◀부내 삼판통(三坂通)이백사십사번지 송엽(松葉)『가가』라는여자는 바느질삭을모앗든돈백원을, 부내장곡천정(長谷川町)비전옥려관(備前屋旅館)에서는 돈삼십원을 이십칠일에 조선방공비로조선군사령부에 바첫다

本院을 擴張移轉하얏사오니 諸位의 倍前愛顧를 바라나이다 京城府苑町三二一ノ十號 產婆 沈恩淑 順產院 電話光一四九四 見舊會員하시는분은 電話로相議하야주십시요 (廣告)

進行列車에서 跳下投江自殺

어십륙일 오전아홉시삼분에평양(平壤)을떠나 경성으로 가든 제일백륙렬차가 흥수(興水)서흥(瑞興)사이의 서흥철교에 이르럿슬지음에 그렬차로부터 로동자가래보이는 조선남자한명이 별안간에 물가운데에 뛰여드러갓다 교량감시인이 어것을발견하고 구조하려하엿스나 그만물에 잠겨버렷스므로 어사실을서흥역장에통지하야 그역에서는 경관과협력수사한결과 얼마뒤에 시체를발견하엿다 주소성명은 알길이 업스며 무슨까닭으로 죽어버렷는지 알수업다고한다

江陵에또豪雨
南大川增水도危險

【江陵支局特電】 어십륙일오전열한시쯤에 강릉군일대에는 호우가잇서서 남대천(南大川)수위는 각각으로 증수하야 작년의참사를생각한 주민들은 가구를정리하고 그중에도 성급한사람들은 피난을 하는사람까지잇서서 한동안소연하얏다 이와가티 초조한 하로밤을 지낫스나호우는 아직 끄치지안코 이십칠일아침열시현재 남대천의 수위는 이메돌남하야 위험수위인삼미터를 돌파하고잇다 평지의수위미리구어나 각지의 위험한모양으로현재와가티계속하면 남대천제방도 부지를 못하고 전주민도 피난을 해야만할것갓다 목하 경찰 수방단 소방조등은 대기를하는중이요 하천의 증수로 강릉、간성(杆城)사이는 교통두절이되고 우편체송도 못하고잇다

로 대단치안헛다 어십칠일오전네시에 복구되엿다 원인은 조사중이다

通川金州學院서 義金을募集

【通川】 통천금주학원 아동일동(通川金州學院兒童一同)은 국방비에쓰도록 보내여달라고 매일선생에게 현금을헌납하는아동이 속출한다한다

留置場서邂逅된 戀敵이자또同志
警察部에檢擧된朴鎭洪의뒤따라李順今 四年만에出監하자또被捉

지난 십구일밤열한시경에 시내 영등포비행장(永登浦)부근에 돌연 사변동안이나 경찰이추급에추급을 다하고잇던 적색운동의거두 리재유(李載裕)일파의유일의 잔류당원 리관술(李觀述)이가 나타낫다 살아진이후 경기도경찰부에서는 아연긴장하야 리재유의 애인이던 박진홍(朴鎭洪)등을 검거하여다노코 방금 대활동중이라함은 기보한바와갓거니와 그후 경찰부사찰계형사의 계속활동에의하야 시내모처에서 박진원(朴振遠) 박영찬(朴永贊)등을 검속하여다가 엄중한취조를하더니 이십륙일에는 리관술이의 친우의 동생인봉시에서 소화구년일월시외의선정(善町)『아지트』와 그달 십팔일 체부정(體府町)『아지트』의탈주로 리재유의최초의『하우스키-퍼』때까지리재유의그림자와가치딸아단이던 리순금(李順今)(二七)이를 영등포서원과협력검속하야와서취조를하고잇다 어리순금이는리재유의적로사건(赤勞事件)으로소화구년정월에 서대문서에 붓잡혀 이후 그동안 류치장에서 감옥으로 넘어가서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을하고 지난 십이일에 사변만에사파로 만기출옥된것인데 출옥즉시그동안 지하운동을 계속중이고 친오빠되는 리관술이와련락을매저서 동지연 박진홍이와도련락을 매즈랴고 하던 혐의인듯하다 사변후에 철창에서 사파로나온 리순금이는 그의 지도자요 애인이던 리재유는 그와교대하듯시 철창으로 들어간후어엇는데 이제또다시 그의오빠의 관게로 류치장속의몸이된것으로 옛날의 동지이던박진홍이는 사변후지금에는 자기의애인 리재유와자기가 철창속에 잇는사이에 동거생활을하야 아해까지 나흔박진홍이와 더부러 가튼 유치장속에서 그들의 『델리케이트』한입장에서 한숨을 짓고잇다(사진은 리순금)

忠北線延長免許
—忠州驛으로부터寧越까지— 京釜中央兩線을連絡

조선철도회사에서는 수월전에 충북선(忠北線)충주역(忠州驛)으로부터 강원도영월(寧越)에이르는연장선 부설(延長線敷設)을출원중이든바 수일전에 철도국으로부터 면허(免許)되엿다 이철도는연장 팔십삼키로 오분 (북면지선=北面支線까지) 으로 여것이완성되는때는 기설의충북선과일련하야 경부(京釜)중앙 (中央) 량선을련결하는중요한임무를 가지게될터이라한다 이철도 연선과 벽지는 충주와제천(堤川)을 중심으로한 두 평야를 제하고는 대개 산악지대인데 광대한 지역에 빼치여 풍부한목재와 무연탄(無煙炭)을 비롯하야 여러가지의 지하자원 (地下資源)을 포장하엿고 특히 충주영월일대의 담배(葉煙草)의 산액은 조선안에서 수위를차지 하고 잇다한다 이런 중요산업의 개발조장은 이철도의 실현에 따라 더욱 유망하게 되야 그성취는 매우 기대되는바만 한다

歡送少年을感激케한 車窓의無名兵士
感謝便紙속에學資五圓을投贈

【朝鮮軍司令部發表】 지난번에신막역(新幕驛)에서 만흔사람들이 국기를 흔들고 만세를 부르고 환호하는 동안에 발차시간이되엿든데 차창(車窓)으로부터 별안간에 병사한명이 머리를내고 서국기를 흔들고 잇는조선소년 한명에게 조고만한 조이봉지하나를 손에쥐여주고 떠낫다 그렬차가 떠난뒤에 그소년이 그 조이봉지를 떼여본즉 오원짜리지화한장과 연필로서 『조선의소년들! 고맙다우리들은 이처럼 렬성적인 환영을바더서 그저잇슬수는업다 일본군대는 강하다 우리들은 나라를위하야 힘껏활동하야 꼭국은(國恩)을 갑흘터이니 아무조록 안심하여다고 이것은 적지마는우리들에게 돈은 필요업스니 연필이라도 사서 동무들에게 나누어다고 그리하야 공부를 잘하야 우리들이 업서진뒤에라도 황국일본을 위하야 진력하여다고』라고 쓴글발이 드러잇섯다 그소년은 곳 그것을 신막보통학교장선생에게 전하엿는데 어사실을 드른관민기타 각방면에서는『이것이야말로 내선융화의표는』이라하야감격하여마지안는다한다

保險金詐取目的의 放火魔에十年役
京城地方法院서求刑

장사를하다가 실패하고 회재보험금을타고저 자기상점에 불을노앗다는 부내죽첨정(竹添町)이정목 백번지의 일본인조완(金…)에 관한방화 동미수피고사건공판은 이십륙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증촌(增村)재판장주임하에 三심 근등(近藤)검사관여 며레열리엿다 피고는 작년봄부터 전거창소에 점포를 빌려 가지고 안경장사를 하여오든중 영업이 잘되지안하야 사방에서 외상갑과 빗재촉을밧든 끄테 작년십일월께에 三장사진행하지 당하게되자 그는 일본흥산화재보험회사에들은 화재보험금 삼천원을 사취할 목적으로 십일월십삼일 새벽에 자기상점에 불을노아 자기상점과 그이웃집 세채까지 전소케한것인데 재판장의 심리가 끗난후 검사는 요사이 어려한 범죄가 만흔중에도 피고의 범행은 다른집까지 연소할줄알면서 불을 노흔것은 여간 악성을띄운범행이아니더로서 엄벌할 필요가잇다하야 징역십년을 구형하엿다

列車에觸死

어십륙일오후한시반에 군산(群山)을 떠나 전주(全州)로 가든 제삼백삼십륙렬차가 개정(開井) 지경(地境)사이를 진행하든중에 남자두명이 렬차아플가로 건느려다가 한명은 피란하얏스나 한명은 기차에 바치여 머리가깨여저 즉사하얏는데 그는전북옥구군회천면 금광리(沃溝郡澮川面金光里) 사는 윤달용(尹達容)(四五)으로 판명되엿다한다

社會課에서發案 住宅組合을計畫
低利融資로基金을작만하야 會費制로代金回收

총독부사회과에서는 최근극도에달한 주택난을 완화케하고자 명년도에 주택조합(住宅組合)을 조직하거로되엇다 주택조합을 조직하자면 먼저 주택조합령을 제정하야가지고 그 법령에의하야 상당한 자금을저리로기채하야 주택을 희망자에게 건축하야준후 몃달 혹은몃해에나누어 회비제로 그대금을 회수하는것이다 그조합은 조합령에의하야 총독부에서 상당한 보조금을 주게됨으로 명년도예산에 이것을요구할려이며 위선 주택조합령을 방금 초안중인데 일본내지에는 벌서 오래전부터 이주택조합령이 제정실시되어잇다

며어다가각가스로치료를하여보앗스나 드디어 소생치못하엿다고 한다 죽은원인은 지하실에고여잇는 탄산와사중독이라고하며 박귀남이는 집에그의처와 어린것이잇서서 로동으로 근근히생활을 하여가든 처지라고한다

地下室서變死
까스에中毒되여

어십륙일 오후네시쯤에 부내본정(本町)일정목 대택상회(大澤商會)지하실 수구(水溝)소제하는 곳에 그곳고용인 중림정(中林町)이백오번지거주 박귀남(朴貴男)(二六)이가 죽어 넘어저잇는것을 가티일하든 황승현(黃勝鉉)(三〇)이가 발견하고 곳남산정(南山町)편산의원(片山醫院)까지 떠메

海州金組評議會

【海州】 해주금융조합(海州金融組合)에서는 칠월이십사일오후 한시부터 조합회의실에서 금년도 제어회평의원회(評議員會)를 열고 다음의사항을 결의하엿다

一、退職事務員身元保證金還付의件
一、業務用土地購入의件
一、理事舍宅新築의件

落花紛紛"漢江橋"
今朝兩名의妙齡女가投身自殺

구진비나리는 이십칠일 새벽 한강연도교에서는 비연의 두신자살자와 자살미수의 두꽃다운 처녀가잇섯다 오늘새벽 세시사십오분쯤 부내한강(漢江)인도교 한가운대에서 한강으로향하야 투신한여자가잇섯는데 부근에잇든 천진전 유선업(川眞田遊船業)고용인 변태식(邊泰植)(二三)과 황세환(黃世煥)(二三)두고용인이 발견하고 곳 현장에 뛰여드러가 오분만에그 물구조하엿다 그는경기도 양평 군청운면 비룡리(京畿道楊平郡青雲面飛龍里)에서사는 김상선(金商善)의 셋재딸 김순자(金順子) (一七)(假名)로 지난 이십오일까지부내초음정(初音町)…십사번지룡좌위문(龍左衛門)방에서 하녀로잇스면서 지금부터 열변전에 제대의학부위생학교실 (帝大醫學部衛生學敎室)급사 리일영(李一榮)(二二)(假名)과서로 사랑하는사이가되여 지나오는사이에 남자의 변심으로 결혼도못하게되엿스며 필경김순자는 실연을당하게되자 때마침주인으로 부터 해고를당하야 자기형부가사는부내광희정(光熙町) 이정목이백오십번지리성중(李成仲)의방에가서잇다가 오늘새벽한시 오분쯤 한강제이연도교에까지 자살을각오하고나가『나는변심한남자를 사랑하지안는다』하는유서를써노코 투신하엿스나 구호를밧게되여 무사히 형부의집으로도라가게되엿다 그를구조한 량명은 어면구조를 멀지안허 표창이엇슬터이라 한다

◀또이십칠일 새벽여섯시쯤

天氣豫報

概況=颱風은 日本海中部에 잇스나 그勢力은 크게 주러저 七四六미리內外가 되여東北東으로 다라나고잇다 滿洲北東에잇는 低氣壓은 東支那海와 奉天의 東側에잇서서 支那內陸도 氣이낫다 高氣壓은 東部의 海上에잇다 滿鮮은 曇 京城 全州는雨 西日本은 晴이나其他는 흐려서 北海道南岸에는 연개가 끼여잇다

豫報=京城地方은 今夜는 흐리고 明日은 흐린後 때때로 개인다 京畿全區도갓다

昨日最高 三三度
同 最低 二四度五
今朝最低 二三度二
今日正午 二四度六

白茂線列車脫線

어십륙일 오후한시반에 백무선(白茂線)백암(白岩)을 떠나연암(延岩)으로 가든 림시화물제구 천오백십칠렬차가 비화물차네재를 련결하고 도내(島內)상황토(上黃土)사이 철문십사의 나림막에 어르럿을 지음에 별안간에 거관차와 둘재번화차 두재가 탈선전복되고 남아지두재는 탈선경사하엿는데 승원은 무사하고 차량의 손상도별로업다

李華永에三年求刑

대정십사년께부터 공산주의에 공명하야 조선공산주의건설동맹사건에도관게하고도공산운동의거두량명(梁明)리종림(李宗林)등의 권유를바더『모스코』공산대학속성과에입학하야이를졸업하고 작년에조선안으로들어와서 비밀리에주의를 선전할계획을엿보고잇섯다는혐의로 부내종로경찰서에 검거되어 치안유지법위반혐의로종국된 경기도김포군양동면목동리(金浦郡陽東面木洞里) 리화영(李華永)(三〇)에관한 공판은 이십칠일경성지방법원에서 산하(山下)재판장심리거(長崎)검사관여미테 열렷는데 재판장의 간단한사실심리가 끗난후 검사로부터 징역삼년구형이 잇섯다 언도는 오는삼일에 내리기로 되엿다

스포-츠

大邱에遠征
高麗野球團

高麗野球團에서는 大邱野球俱樂部의 招聘을바더 大邱에 遠征하야 八月一日에 全大邱、大邱俱樂部와 對戰할터이라한다

甲子園中等野球 朝鮮豫選各地代表

大朝主催의 第二十三回全日本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朝鮮第一次豫選會는 지난二十二日부터 西朝鮮、北朝鮮、湖南、南朝鮮、中部等 五個地方에서 一齊히 열린바 各地方代表팀은 다음과가트며 明二十八日午後一時부터京城球場에서 第二次豫選戰을 擧行하기로 되엿다한다

◀中部代表=龍山中學 ◀西朝鮮代表=平壤高普 ◀北朝鮮代表=咸興農業 ◀湖南代表=裡里農林 ◀南朝鮮代表=大邱商業

青學、平高와一勝一敗

中央基督敎靑年會學校籠球部一行은 지난二十五日에 平壤에이르러 平壤高普軍과 二回戰을 行하야 一勝一敗의 戰績을 남기고 二十六日午後三時發列車로古邑에向하야 五山高普軍과 對戰하기로되엿다한다 그리고 靑年會學校의 戰績은 어로서 四戰三勝一敗이라고한다

靑 學 3 5 (1322……1512) 2 7 平 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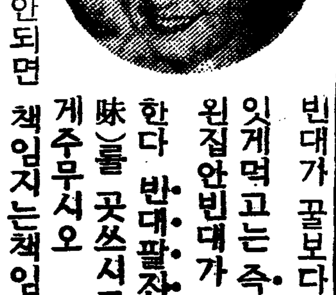
日米對抗陸上豫選 各種目經過

日米對抗日本代表選拔豫選會第二日은 二十五日午後三時부터東京神宮競技場에서行한바 各種目戰績은다음과갓다

【二百米】 1谷口(關大)二二秒八 2湯淺(慶大)二二秒 3井後(慶大)二二秒四
【五千米】 1村社(中大)一五分三秒 2田中(簡保)一五分三四秒 3常松(文大)一五分五〇秒八 4柳長春(朝遞)
【三段跳】 1戶上(關大俱)一四米九六 2田中(早大)一四米九四
【棒高跳】 1大江(慶大)四米四〇 2安達(早大)四米一〇 3龍田(關學)四米
【八百米】 1青地(名知)一分五六秒二 2富江(仙鐵)一分五七秒二 3藤校(大阪市役所俱)一分五八秒二
【投砲丸】 1松島(文大)一二米八六 2横田(釜石製鐵)一二米七二
【高障碍】 1村上(早大俱)一四秒八 2矢田(早大)一五秒四
【四百米障碍】 1相豐(簡保)五四秒六 2福田(關大)五五秒七

明大陸上勝捷

明大陸上軍對全滿洲軍의 對抗陸上競技大會는二十四日午後三時부터 新京西公園運動場에서 擧行하엿는데 結局五十九對三十五로 明大軍이 快捷하엿다한다


빈대즉사전멸
빈대가 꿀보다더달게맛잇게먹고는즉사함으로 왼집안빈대가 몰사전멸한다 반대팔잔마(八珍味)를 곳쓰시고 잠을달게주무시오
만일에 전멸안되면 책임지는책임권을드림니다 이한 여름뿐아니라 영원히 편안하게 지낼수잇슴니다
갑슨 삼원 이원 일원 지방은 대금인환 삼섭오전이더합니다
경성서대문정 신기신성당약품주식회사 電話光三三四光一〇七番·振替京城四九五〇番

國民中學講義錄
緊急處分大投賣斷行

左記國民中學全科講義錄十二卷十二冊合本定價十二圓인대今回整理를爲하야但只一圓五十錢에投賣함(前金注文로申込次第荷造費共一圓九十五錢送付할것)賣切되기前에至急注文하라!(萬一不合時는返金)
中學全學期十二卷十二冊一合本을단一圓五十錢에投賣합
立身出世는中學卒業者에서
●小學卒業後上級學校에못가고悲觀하지마시고 ●단一圓五十錢으로中學卒業과同等의學力이잇다!
緊急處分으로內容見本은업다。
發賣元 大阪市東淀川區西町 振替大阪五六〇一四 現代出版社

漁具
極上麻絲製 網投 四分二等 九十一圓 五分二等 九十一圓
鳥捕網 二間、二圓 釣竿、釣針、麻絲、絹絲、綿絲其他
(申込次第カタログ進呈)
京城府黃金町四丁目 卸商 海鮮商會 電本四三七〇 振替京城二〇五七九

各社新譜 레코-드二十枚에壹圓! 極東洋行

28日封切
ワーナー・シナヨ・ナルー週特作 ロイド・ベーコン監督 ベッテ・デーヴィス主演
札つき女
P.C.L.I.O 超特作 久保田義監督 森野鍛治哉・藤尾純・主演(京・大阪の卷)
唄ふ弥次喜多
北支皇軍慰問歸途突如來演
江戶家猫八師實演
冷房完備 大人五〇錢 學生小人三〇錢
若劇

嬰兒丸 영아환
어머니의偉大한힘

小兒肝氣驚風 小兒藥의元祖 營養素의含有
어린아희를生育하는것은어머니의偉大한힘이외다 그러나不知中에襲來하는急症에는어머니도 能히征服할수업시 귀여운子女를 일허버리는 일이얼마나만습니가 實로어린아희의 生命을代身할수잇는藥은이嬰兒丸뿐이니 滿天下의 어머니들이 시여 언제나一劑式常備하여두서요 그리하면 당신의偉大한힘도더욱더날것이외다
效能 小兒肝氣·驚風·吐乳·青便·身熱·夜啼·泄瀉·五疳·胃腸病·胎毒·丹毒·等
(定價=二〇·三〇一圓·五〇)
全鮮各有名藥房에서팝니다
總發賣本舖 京城府 朝鮮商會

술과비-루를 잡수신다면……
술과비-루를잡수시면 곳설사하시는분이잇습니다 至今까지는胃腸이弱해서 그러타고斷念하고잇섯습니다마는 新發明의胃腸藥도모산은알콜의刺戟을막고醱酵物을吸着하야 大便으로나오기때문에惡醉、宿醉는勿論설사를막을수잇는好評잇는名藥이다
다른原因으로설사할경우에도 이약으로速히恢復됩니다
急性·慢性의설사 가슴아픈대·宿醉에
評判잇는新胃腸藥 도모산 トモサン

괘마시는대 도모산을 먹엇스니 걱정업서요
먹기조코小兒에도効力잇고 價格大廉價二(一回二錢)
十八錠入 二〇錢 九〇錠入 七〇錢 二七〇錠入 一圓五〇
藥店にあり 東京市日本橋區本町 販賣元 友田合資會社
T,640

星印コップ

カタログ進呈
釜山榮町 星硝子製造所

매독창병엔 푸로다ㅡ가제일이오

경성서대문 신기신성당에잇습니다

물가폭등 지금안쓰시면 곳 약갑이 멧배나올읍니다

육백육호를여러대써도 안되는분은 꼭한번시험하시오

인생(人生)의 최대행복(最大幸福)인 건강(健康)미(美)를 맛보시오 인생은 건강이제일입니다 무병이 장자요 병두고는 영웅렬 사라도 못견됩니다 병이라는것은 안죽는병이업다손 룹밋헤 비접만 드러도 그것이 원인이되여 큰병이되여 죽게 된다하니 하물며 몸에 큰병이잇스면 일시라도 속히치료 하여야합니다 신성당푸로다ㅡ! 는 효력이속하고 절대책임잇는 약이오니무서운병을 속히 고치시와 인생의제일행복인 건강미를 어드시오

자미잇는문제?

내가지금매독에 걸녓다고가정하고 곳 치료를하여야하겟는데어찌하여야될가? 무슨약을써야할가? 생각하야 보시요 만일 푸로다ㅡ보다 더조흔약이잇거든 그약명과 내용을통지하야 주시면 사례하겟슴니다 신성당은제일 조흔약을팔기가소원이고제일조흔 약을파러야영업이흥왕하는까닭

驅黴最新強力劑

매독전멸하는제일힘센신발명약

푸로다ㅡ PROTAR

매독에대한신발명참해(慘害)

매독은 살이퍽퍽 썩어들어가는 무서운병인줄만 알엇드니 이외에 일년에죽는사람이 수만명인것을 알엇다 그중에도일층더참혹한것은 뼈(骨)를 갈가먹을뿐더러 이(齒)까지 다갈거먹어 전부빠진나 최근에 모운전수는 하로밤의 작난으로 멧달못되여이가ㅡ다ㅡ빠지고 전신을움직이지 못하게되여어느병원에서든지 치료하기어려웁다는 리유로 입원을거절함으로 최후에치료하다가 죽어도조타는 부모의승낙서를가지고 왓는대도 거절함으로 야밤중에 자동차를타고 신성당으로와서 애걸복걸하엿섯다 그리하야 하여간 제일강한(십오원)놈을 한제우선 시험하여보라고 하엿더니 차차효력이잇서 지금은 완전한사람이되여 이를 다시해박고 여전히 활동한다 한다 지독한 매독이여 경성신성당에서 요즘새로 신발명한 강력매독약푸로다ㅡ가잇나니 십오원짜리한제면 고만이라한다

매독전멸

만일무효면엇더한책임이든지집니다

京城西大門入口 (제일큰힌벽돌집)

發賣元 **神崎神聖堂藥品直輸入株式會社**

電話光化門三三四番・光一〇七七番・振替京城四九五〇番

지금곳안곳치면 대대손손칠팔대까지 유전하는무서운병은매독이다

매독에는 륙백륙호만 마지면 곳낫는술알엇섯다 그런데 근래(近來) 륙백륙호로 매독이완전히 근본적으로 완치된다는말도듯고 또실지로연구하야보앗다 또매독환자는그다지 만치안혼술알엇섯다 그러나 그생각이 전연(全然)근본적으로잘못알엇다는것이 판명되엿다 즉륙백륙호를매독에걸려서 즉시게속하야 일수일만에한번식 십여대나마저야 겨우 일시적효력을알게되고 잠간동안 잠복시켜 매독을 놀러서못성하게하얏다는것을 알엇다(일수일전에또마질수업는것이다 일수일전에 또마지면 딴병을알케되고 잘못하면숙는고로 일수일에만 한번식맛는것이다) 다시말하면결국 륙백륙호로는절대로는매독이근본적으로완치되지안코 십여대나주사를마저야 겨우일시적정지를시키면수잇스나곳또다시재발하는것을 알엇다 그러면륙백륙호를칠십일이상불일못보고 돈을오륙십원이상허비하고 주사를마젓짜아모소용이업고귀중한시간과금전만허비한다는것을알엇다 그뿐더러 륙백륙호를마지면 몸이약한사람은약일주일동안은일을못하고알코들어누어서고통을밧는사람이만타 또주사를잘못마저서즉주사가정맥외(靜脈外)로새면살이썩어숙게되는고로곳팔(腕)을잘러버리고 병신이(不具者)되는사람이만흔것을알엇다 또그뿐더러열중에칠팔명(十中七八名)은주사를열대(十本)이상은돈이업서서(金錢과時間이)맛지못하고 이병을그대로두어서 살이퍽퍽썩어들가는것을 만히보앗다그일예(其一例)를 들면하로는경성시내에잇는한남자가 왼전신매독이 만창이된시골승을다리고(雇人)왓는데 와서이병좀고처수시요하고 보이는데 그병처(患部)를보고 깜작놀낫다 그병처라는것은 당초에 말할수업는것이다 즉 분문(肛門)과 낭(囊)사이에 이전(二錢)짜리 동전만하게 큰구멍(孔)이 빵ㅡ러저잇섯다 아이 저러케 몸에 구멍이 뚜러지고도 사람이 어떠케 살어왓나하고 차차 물어보니서울서 머슴사리를하는데 우연히 매독에걸려 차차살이 썩어들어가나 머슴의신세라 약쓸돈도업고 주사마즐돈도 업고하야 그대로내버려두엇더니 그러케 구멍이크게뚜러젓고요지음은전신에 종기부스럼이(梅瘡腫)륙륙러저 인제는 못살것가터서 그전살던서울주인을차저와서 그전살어는든 정의로 사람좀살려주시오하고애걸을하려온것이 판명되엿다 그리하야 그주인이돈은내가낼터이니 이불상한사람을좀살려수시요하고차저왓섯다 그리하야약을 주엇더니 완전한 사람이 되엿다고 편지가왓섯다 또 한례를들면 그후에웬남자가한부인을데리고왓는데 얼굴이만창이되여송진처럼두덕이가저서 소름이끼치여서 눈으로는볼수업시되엇는데 그부인말이 이병만곳처주면죽어도그은혜를안닛겟다고 우는소리를하면서원하는말이 여자가얼굴이이러케되여 남이붓그러워살수가업슴으로 주사는놀곤 여러백대를맛고약이라는약은 잇는대로다 쓰고별별치료를다하여보앗스나 종시낫지안하는대엇던사람은암만매독으로치료하여도안나으니 매독이아니고풍이라고하야 풍약도무수히써도 안되고아니니신성당매독약푸로다ㅡ는 매독이아니고풍이라도나을수잇다ㅡ나고 말을하얏다 신성당매독약푸로다ㅡ는단순히매독즉 창병만낫는것이안이고보혈청혈(補血淸血)피를깨끗하게하는약임으로 설령매독이 아니고 풍이라도조흔한번시험하여보라고하엿더니 멧칠후에그부인이왓는데 말숙한미인이되여왓다 아ㅡ참위대하구나약의힘이여 그러케도무섭게생겨눈으로볼수업는사람이 수일간에미인으로화하는것을보면 그리고그부인말이인제는사러낫습니다 선생님의은덕이야그야말로태산갓다고합니다 이러한자신하에서 그뒤로차차연구를거듭하여보니 무슨병이무섭다하여도 매독가티무서운병이업는것을알엇다 즉임질이나부인대하증냉병은자손에게유전(遺傳)은안되는대 이매독은 자손에게유전할뿐더러 칠팔대(七八代)를대대로전하여 가는것을알엇고 코가떠러지고 ○도빠지는것을 알게되엿다 즉남편이병에걸니면 그부인도물론꼭걸니고 아이도피속에그균(菌)을가지고나온다 참무서운병이다 그리고매독환자는 적은줄알엇더니 사실은그럿치안타 다ㅡ비밀에붓치고말을안하는고로 업는것가트나 그러치안타 열중에오륙명은잇다 그런대대개는상약이나주사나 만히하엿서도낫지못하고고통을밧는것을 알엇다 또수은(水銀)을 피다가 죽은사람이만코 다른운을 하다가병신된 사람이만타 또조약상약(造藥常藥)을 쓰다가 피를토하고구감(밥통과창자를버려)이나서 죽게된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럼으로이무서운병을알면서그냥둘수업스므로충분히연구를하엿섯다 그리하엿드니감사장이매일답지하므로자신을어더이와가티광고를 내게된것이다 천만가지로약을하고별별치료를다하여도안나어고통하는분은 일시라도주저마시고 곳시험하시오 틀림업시낫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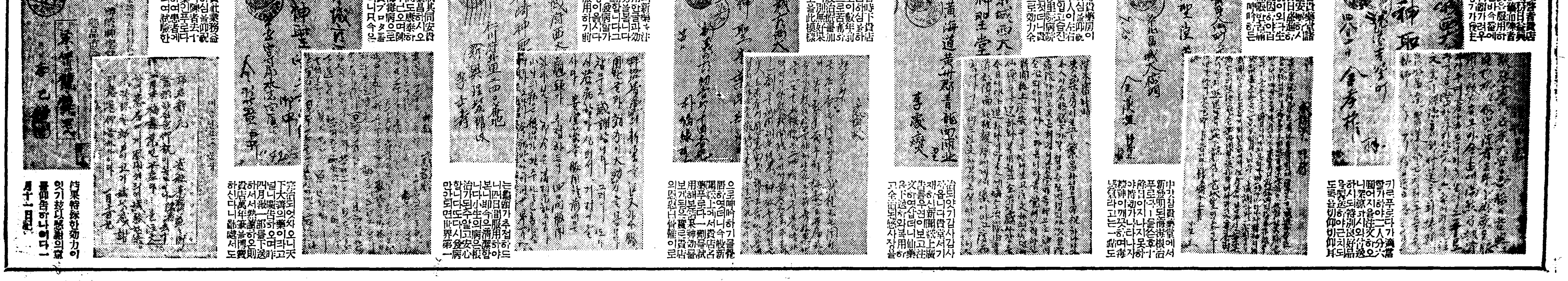
약가

병이중한데는	십오원
병이원만하면	십원
병이시초면	칠원
예방으로는 병이경하거나	오원

병이좀심하면십오원분이좃습니다

지방송료

선금	십오전
대금인환	삼십오전



※숲☆속…★…의☆한…★…낫※

눈, 코, 입에도 건강미가 잇다

피서의 반은 향락취미 집안에 잇서서도 보건돼

일년에 춘하추동의 네철이 잇는 한 더위나 추이는 반듯이 돌아올것인데그것을 피서(避暑)가고 춥다고 피한(避寒)가서는 피해다니다가 다른일을 못합니다. 덥거나 춥거나 제몸만 건강하면 고만이지 그러케 할필요가 업는것으로 비용도 한푼 안드리고 집에서 피서간이만 못지안케 건강해지는 방법을 두가지만 아리켜 드리기로 하겟습니다

(一)눈과 코와 입은 얼굴의 한중간에 노히어잇서서 그 사람의 간판노릇을 하고 잇습니다. 그 세가지의 위치와 모냥새를 딸아서인격도 들어 나고 성시결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만그치는 것도 아니요 건강에도 큰 관계가잇는것이랍니다. 눈, 코, 입의 건강을 주의하야 주시기바랍니다. 몬저 눈인데 눈은 씻는것어 제일입니다. 눈을 깨끗이 하는 것은 신진대사(新陳代謝)를 조케 하고 피로(疲勞)를 제해주는 효과가잇습니다 그래서 눈ㅅ병의 예방에도 조커니와 근시안(近視眼)이나 노안(老眼)에 도조습니다 씻는것은 보통 정한물을 떠서손으로 꾹꾹 눌러도 무방하지만은 할지면에 붕산수를 무처서 씻어야 합니다 그다음코도 정해야하니 공기를 드려마시는 그길이 터러워서는 흠예 나쁩니다 물론 그역시 씻는것이 제일이나 그 속속드리 손을 너허 씻는것은 도리어 해로우니 코구먹의 가장사리만 훔치어냅니다. 맨끄트로 입은음식을 먹는 기관인만큼 정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새삼스러이 말 할 여부도 업습니다. 음식을 먹기전후에는 반듯이 냉수로 양치질을 해야됩니다.

(二)맛난 것을 만히 먹는다고만 건강해 지는 것은 아니나 음식을 못먹으면 물론 건강해지는 것만은 사실이니 음식관계가 사실로 큽니다. 그런데 하로세끼에 무나 시금치나 양추자나무어나 채소를 날로만 먹는다면몸이 조와지는데 특히중년에 몸이 불어 고생하는 분네에게 특효가 잇습니다말어나 소가 어닌데 어떠케 날로 먹느냐고 하실찌 모르지만은 채소를 그대로먹지말고 간장어나 초고치장에찍어 먹으면 좃습니다다무나 양배추와 달러서 배추나시금치가튼 것은 그대로 날로 먹기좀 언쩐치만은 그역시 버릇드릴 탓입니다다만 소독만은 완전히 한것이라야 합니다. 간단한소독법으로는 물을팔팔 끄려 노코 저ㅅ가락으로 한 입사 한엽사 집어서 잠간잡간 잠것다가 끄내는것입니다.

가정을망치는 성병에 대하야

④ 부끄럼업시 속히치료할일

城大皮膚泌尿科 鄭槿陽

성병이라도 병임에는 마찬가지다. 병에걸리면 그것을 완전히 고치기만하면 그만이다. 병을 고치기위하야 병원에가는데 무슨 부끄러울것이 잇슬것이나 그병에 걸린것이 부끄러운것은 아니다. 다만 걸릴만한 행위를 햇다는것만이 부끄러울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아름답지못한행위를 평생을두고 한번도 업슬사람이 도대체 얼마나될것이냐 운수불길하야 나는 이러한병의 세례를 바덧슬뿐이다. 그러한 조치못한 행위를하는 사람이 자긔가 병에 걸리지아니하엿다는 리유만으로서 그병에 걸린사람을 이러니저러니한다는것은 천만부당한일이다. 너이들도 나와 동류가안이냐 이러케 생각할때에 그환자의 심리에는 큰여유가 생길것이요.

[illegible] 업지만은 불명예임에는 틀림업겟지만은 그러나 무슨큰죄나지은드시 병원문을 열제 엽뒤를 두루 살피며 얼굴이 창백해지며 풀이죽어 드러올필요는 업슬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남자이야기만해서 미안하지만은 여자도 그러합니다. 남편이 나빠서 그러니어쩌는수업슬것이요 자신그다지 몹시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업슬것이 안일가 생각됩니다.

이러케생각하고보면 세상사람들이 흔히 성병환자는 몹시도 품행이 나뿌고 모두 불량패들만 모엿다고 생각하는것도 다시 생각할 문제이겟습니다. 물론 나뿐사람이 만켓지요. 그러나 전부가다 그러하다고는 생각되지 안습니다. 적어도 성병환자는 그러치 안은사람에비하면 통터러노코 품행이 나뿌다는 생각은 여튼 생각입니다. 나는 이러한 례를 엽니다. 근삼십까지 참으로 깨끗하엿든그가 술이 취하야 의식이몽롱한데 어떤조치못한 여자의 유혹으로 하로저녁사이에 그는 성병환자가 되엿습니다. 그때 그의 뉘우침을볼때 그는 다른그 누구보다도 품행이 단정한사람이라고 생각하엿습니다. 여러분 이사람에게 불량패라는 끄리표를 부처도 조흘까요. 나는 단연히 그럴수업다고 생각합니다. 요점은 그들이 그런고난을 격근후에 을 행동어 어떠한가에 잇슬게입니다. 참으로 철저히 그리고 길히길히 참답한 계억울잘려 다시는 그런짓을 하지안는가 또는 쉬사리 여저버리고 옛일을 되푸리하느냐에 잇슬것입니다. 일률적으로 그들을 나뿐사람들이라고 욕해버릴수는 업습니다. 어떤 수진한 청년은 자기가성병환자라는것을 비관하야 걱정하고 걱정하는끄테 신경은 극도로 약하야지고 마음내 자꾸을 도모한 일까지 잇습니다. 이것은 국도의 그리고 그릇된 생각입니다만은 이러한 성병환자를 우리들은 불량패로 볼수 잇슬지 의문이 안일수업습니다 멧해전인가 일본내지서 이런일이 잇섯든것을 기억하실줄 압니다 서로연애하든사람과 결혼한그날 그남편되든사람이 림질에걸렷다는 것을 알고 단연히 그결혼의 해소를 성명하고 여성계를 위하야만장의 기염을 토한여자가 잇섯지요. 그 여자가 참으로 남성의 그릇된 정조 관렴에 폭탄을 더질수 잇섯느냐 업섯느냐 하는것은 만 그남편이 성병가 안이고 다만 정조만을 일은자리이엿슬때와 그여자의테도이겟습니다. 그남편이 단지동정만 이정다면 그릇된서할수잇섯것는데 그가 성병을 가젓기때문에 커다란 항의를 제출하엿다면 그여자는 남성의 그릇된성생활에대하야 철저한 항의를 내렷다고는 할수업슬것입니다 왜그러나하면 성병에걸리지안엇다는것이 순결한증거가 될수는 업는까닭입니다. 한편은 운수가 조왓을뿐이겟습니다. 한편은 운수가 나뻣슬뿐이겟습니다. 이야기가 엽길로 버러저 미안하오나 환자자신이 가질바태도와 다른사람들이 환자에 대할바태도를 역설하기위한 까닭이엿습니다.

소고기學

요사이 여름에는 쇠고기거가 자칫만 해도 상하기 쉽습니다. 갓잡은 고기가 너무 딱딱하야 못 쓰지만은 상한 것은 맛도 나쁘고 영양도 업고 속만 할나기 쉽습니다. 본래 쇠고기는 잡은지 열흘이상 열나흘 여내가 제일 맛난데 그러케 보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냉장고(冷藏庫)에 너허 둔다고 하지만은 냉장고ㅅ속에서도 상하지 말란 법이 업습니다. 쇠고기가 싱싱한가 안한가를 알자면 손까락끄트로 눌러봅니다. 탄력(彈力)이잇는 것은 싱싱한 표요 그러치 안한것은 그러치안한 표입니다. 또 쇠고기의 조코나쁜것을 알자면 전골남비에 지저 봅니다 고기즙 놀어지는 것은 조코 배짝 오그라드는것은 나쁜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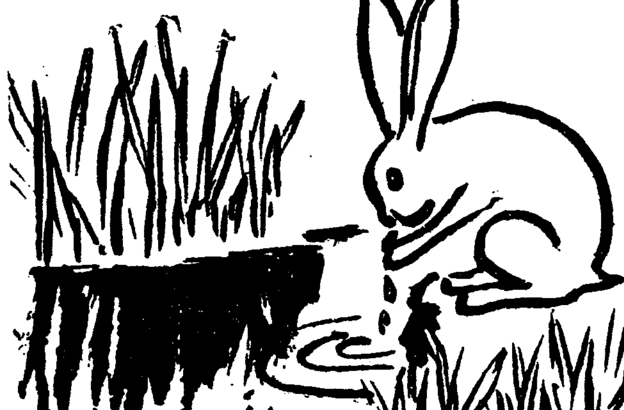
우리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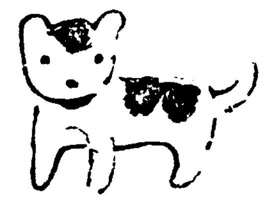
짧은옛날이야기

달속의 옥토끼가 사람사는 세상으로 놀러 나려왓다가 하도 목이 말라 거울처럼 고요히 괴이어잇는 샘물을 좀 퍼먹엇습니다.

그랫드니 금방 술취한 토끼가되어버려 모르고서 물속에 벼친달로 뛰어드러 그만죽엇대요.

(글쓴사람 여청수)





長篇小說 찔레꼿 金末峰作 金熊超畵 【87】

사랑의처도(八)

편지를 봉하려든 민수는갑자기 손을멈추고 물끄럼이 편지를내려다보앗다. 그의 진하게 그어진눈섭이바르르 두어번 떨리자 그는무엇을생각하엿든지 편지속에서 위체(爲替)를 끄내고 그리고 편지를 것봉채 와드득 찌저버렷다.

『좌우간 만나보고……』

그는 시계를 드려다보고 혀를 찻다 오후다섯시가 지난지금방문시간으로는 어미는진때문이다.

그는모자도 쓰지안코 그대로 큰길로 나와서 자동 전화실로 드러가는 민수는 가슴속에싸인우울을 헤쳐버리랴는듯이 가볍게 휘파람을 두어번 날리고는 씩씩하게 전화는 즉시통하엿다.

『여보십시요 거기가 조만호씨 댁인가요…저-안정순씨 좀바꿔주실수 업습니까?』

잠간기다리세요하는 말소리와 함께 쿵쿵하고 저리로 사라지는 발소리를 해이면서 민수는 정순을다리고 어데로가서 조용히 이야기할장소를 생각하기에 머리속이 바뻣다.

이윽고

『노구십니까 저 안정순이야요』

하는 여자의목소리가 들려온다

『……』

수화기를든 민수의 얼가에는일순 중의와 조롱의미소가 흘러갓다

『여보세요』

하고 또다시 저편에서 달가닥각하는 수화기를 흔드는소리가난다

『당신누구십니까?』

하고 민수는 너웃이물엇다.

『저 안정순입니다요』

『조정애씨! 날새안녕하십니까』

『호호호 호호호 어떠케아섯세요?』

경애의 자지러지게 웃는소리가 들려오고 그리고

『자 그럼 전화기를 바꿔드립니다 그런데 바쁘시겟지만잡간 집으로 들려주실수 업슬가요네? 네? 그런데요 민수씨!』 경애의 이야기는 언제나 끄치날지 민수는

『애들니 미리짜가지고 하는수작인가?』

하는 불쾌한생각도 잠간지나갓스나 그는 예서 침착하게 경애의 긴이야기를 일일이 대답하지 안흘수업섯다.

정순은 마친아어들과함께 경애방에서 이형을만들고 잇다가 전화왓다는 소리를듯고 전화실로 나오는데

『정순아 잠깐 내좀 속여볼테야』

하고 경애가 산토끼처럼 전화실로 먼첨 뛰여가는것을 막을수는업섯다.

방글방글 피여나는 꼿송이가티 경애의얼굴에서 수업는 우슴이 흘러나오고 그리고 민수를 향하여 한마디 한마디말을 보내는 그음성속에는 그가 어떠케 간절히 그를조와?하는것이 너무도 분명하게 나타날때 정순은 그대로 전화실을 뛰여나가고시픈 충동을 느끼면서지 못이 아래입술을 깨무럿다 한참만에

『자 정순이』

하고 경애가 정순에게 수화기를 내여준뒤에도 그는코창 정순의 귀가까이 밧삭 고개를드리대고 생글생글우스며

『이봐정순이 오빠 놀려오시래요 응?정순이』

하고 소군거리는것이다

『나혼자말슴이야요?그럼기다리서요 꼭갈테니깐요』

하는 정순의 대답소리를듯자경애는 정순이가 들고섯는 수화기를 번개가티 빼아서다

『정순씨와 조용히 이야기하실방은 우리집에도 얼마든지 잇스니깐요 남매분이 살짝 어떻가시겟다고?……안돼요 안돼요 어리로오서야만돼요』

어린애처럼 어깨를흔들고 고개짓을하는 경애의모양을 물끄럼이 보고섯든 정순은

『웨내가 어려팔을 보지안코는 살수업나?』

그는 자기스스로 가슴속에 물어보고 가만이 한숨을 삼켯다.

경애는 이야기를 다마칫는지 수화기를 꾸걸자 뺑도라서서

『아이조와 인제꼭 오신대서』

그는 좁은 전화실속에서 정순의 목덜미를 힘것 껴안고는 토-땐쓰나하는듯이 한참동안마루바닥을 자조굴른다.

경애는 정순의어깨를 안은채 복도로나오며

『가서 석모더러 차준비하라고 좀일러두고와요 어여』

하고 또한번 정순의목을 껴안는것이다.

정순은 억지로 뺑긋이우서보이고 주방쪽으로향한 복도로 꺽겨갓다.

자기방으로 도라온 경애는 손빨리 파우다를 얼굴에 뿌리고 경구에게서 귀국선물로바든 불란서향수를 한방울 속치마에 떠러트릴때 똑똑 녹크하는소리가 낫다

『손님오섯습니다』

하는 하인의 전갈을밧자 경애는 얼굴에 확근하고 달아졋다.

『어쩌면 그러케 속히오섯슬까』

하고 지금쯤 현관에서 모자를 들고섯슬 민수를마즈려 다람쥐가티 복도로나간 경애는 멈츳 그자리에 서버렷다 뻥그래웃고 서엇는 손님은 윤영환어엇다.

京城各女學校女先生評判記

梨花 培花 [illegible] 3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八月號 女性 發賣中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振替京城五八七八番

夏特輯

畫報 ·八月의水神 ·淸凉의誘惑 ·모던漁婦 ·山으로 [illegible] ·江으로 [illegible] ·[illegible]納涼스포츠

내가女醫가되기까지…金東淑

國際舞台에빗난李貞愛氏를찻어 一記者

京城各女子專門學生夏休플랜 ▲梨花女專生 ▲中央保育生 ▲梨花保育生 ▲京城保育

北平에서본中國女學生 洪鍾仁

納凉四題
午睡…畵 金奎澤 文 洪鍾仁
西湖津…畵 洪祐伯 文 李源朝
漁村…畵 崔根培 文 盧泉鳴
庭園…畵 鄭玄雄 文 咸大勳

新戀愛論 金基錫

主婦日記 崔以權

家庭讀本
改良型內衣製法…任貞爀
海水浴場의化粧法…吳淑根
夏節의兒童衛生…張文卿

詩 마음의湖水…[illegible]

銷夏小說特輯
유모어小說 毛皮濟 朴慶浩
短篇小說 雲霧 鄭飛石
短篇小說 果實 趙豊衍
中篇小說 停車場近處 蔡萬植

納凉隨筆
■感情白紙…金晋燮
■珠簾…張德祚
■太極扇…李源朝

沙場의悲話
※바닷가의노래…朴泰遠
※幻想…毛允淑
※競泳과順伊…安懷南

女流諸氏의銷夏法公開
金活蘭·尹聖相·車士百
徐恩淑·宋今璇·高鳳京
朴奉愛·張文卿·外諸氏

◎記憶에남은夢金浦(旅行印象記)姜敬愛
◎갈받과산개나리(鄕土有情記)盧天命
◎늙은귀신火葬(그夫人一生)申鼎言

世界女性들의新生活 春城
◎世界女性展望 ◎웃지맙시다 ◎內外珍聞

絶版되기前에 速히注文하시오

彫刻家 金復鎭氏家庭訪問……R記者

金剛八潭과羽衣八仙女(朝鮮名瀑傳說)車相瓚

無鼻夫婦說(女性讀本)李殷相

■扉詩…노천명 ■表紙·揷畵…鄭玄雄 ■扉畵·揷畵…崔根培

聖女헬렌·켈러女史의意志(내가나를살리자) 徐恩淑

近代名僧小列傳 ④

湖岩

奇僧雪岑

世祖朝의 名僧을 말할때 法俗兩界를 通하야 一種奇異한存在처럼 되어잇는 雪岑 金時習을 꼽지안흘수 업다。三角山中에서 讀書하다가 一朝端宗의 讓位를 듯고서 크게悲憤하야 痛哭焚書하고 發狂爲僧한이가 金時習이아니냐。그의佛門에 歸依하게 된 動機가이처럼 忠憤의激發에서 생겻다하야 當時및 後世의 同情이 翕然히모혓스므로 排佛熱에 떠오李朝에 잇서 儒林의眞正한崇拜를바든僧侶는 金時習一人이 잇슬뿐이다。

栗谷께서 立傳하야 그를高才奇行의 士로 極口稱頌하엿거니와 生六臣의 一人이 된 그는 거의忠臣의 標本化하고 말엇스니 일은바僞時憤俗하야 羈絆을 끈허버리고 出家한이를 다시 끌어다가 악착한名敎속에 가둡과가틀은 비록虛名일망정 그에게 도리어 累가 될는지 모른다。그러나 儒佛의 家들가 雪岑한한을 掛처의讚歎이 相異할도 도한어찌할수업는바다。그러면金時習은 어떠한 和尙인가。

雪岑의略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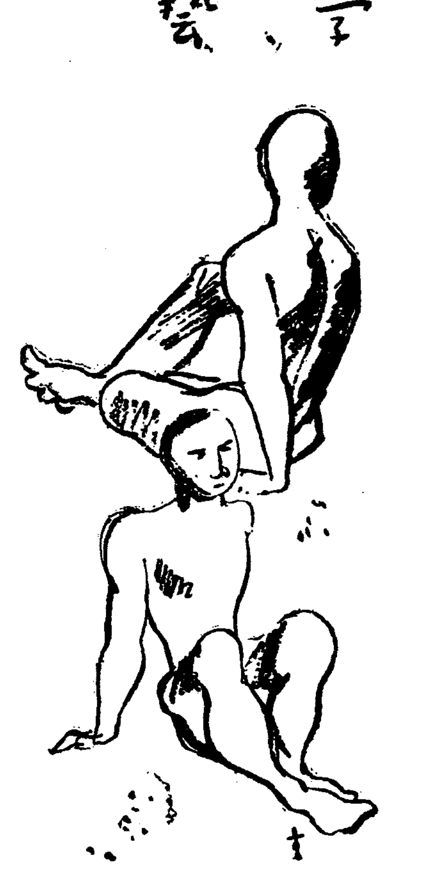
雪岑은 말할것도 업시梅月堂金時習의 法名이니 그는 號가 여럿이 잇스나혼이世間에서 梅月堂이라부른다。

그의 俗姓은 江陵金氏로 字는悅卿이니 世宗十七年(一四三五)에 漢陽에서 出生하야 三歲에 能히詩를 짓고 五歲에 中庸大學을 通하야 神童의譽를 어덧는데 世宗께서 드르시고 政院에 불으서 그才를 試驗케하매 과연聰慧絶特하므로 帛五十匹을賞賜하시고 장차 擧業의 成就를 기다려 大用하려하셧다。端宗三年에 三角山重興寺에서 讀書하다가 端宗의讓位를 듯고發狂爲僧하니時年이廿一이라 儒佛과諸子百家에 博通하고 詩文에俱工하야 一世에 그이름이高햇다。어로부터 名山水사이에放浪할새 가는곳마다 吟咏과 痛哭으로 鬱憤을 表示하엿스며 가까이는 楊州水落山과雪岳寒溪로 멀리는 慶州金鰲山에 이르기까지 거의그足跡이 印치지안흔곳은 업섯다。한번은 世祖께서 圓覺寺에 雪水千人道場을 設할때 王命으로 불르시매 雪岑이 오기는 왓스나 街衢溷廁에 빠저 半面만 露出햇스므로 狂僧이라하야 黜送을 當한적도 잇거니와 그가四十七에 長髮還俗하야 肉食娶妻한일도 잇섯스나 그 妻가 죽으매 다시入山爲僧하엿더니 成宗廿四年(一四九三)에 鴻山縣無量寺에서入寂하니 壽가五十九이다。

雪岑의思想

雪岑은 佛僧하야 倫理의 發을깨트리고 解脫을 求햇스나 마친내 解脫을 하지 못한것은 一生을 두고 苦悶에헤매든 그의行動이스스로 證明하고잇다。그의雖善에드러난 그의思想을 볼지라도空卽是色이오 色卽是空어란 無碍圓融의境地에이르지못한것갓다。그는雪花千山曉、風高萬木秋가튼그의禪句로서 自嘲함에不過하엿다。

學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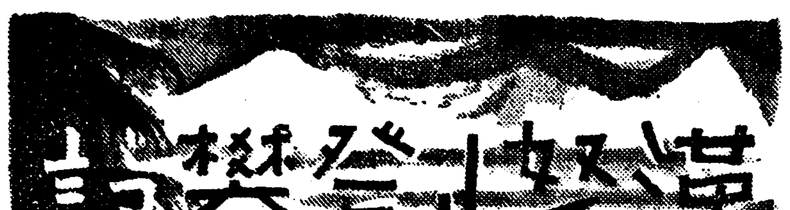
朴燕岩의藝術과思想

그의生誕二百週年記念 (2)

洪起文

李窓齊가튼 분은 燕岩의 文章을 그다지 노피 評價하지안하얏더라고한다。虎叱以外 될글이 업고 그러니까虎叱은 그의말과가티 他人의 作을 **謄錄** 한 것이리라고 推測하얏는모양이다。오직 寧富만이 아니라 所謂古文의 正道를 찻는 사람의 眼目으로 對한다면 燕岩의글은 一種의 異端으로바게 터보이지 안할는지 아지못한다。寧齋以前洪淵泉과 金培山에게 燕岩의詩를請하더라도 적어도 醉正한 文章家라고 讚譽하얏슬지는 자못疑問이다。淵泉은 網禹散筆에잇서 서울의 取音인 徐鬱이란말을 꼭 한번써보고 십건만은古人이 쓰지못한말을 쓰기가 難重하야 終生쓰지 못하얏다고 自家의 小膽을 스스로 告白하얏는데 燕岩은尺牘中에잇서 皇居帝都를 모두다 長安이라고하고 歷代相公을 모주리 丞相이라고 하야서는 名實이 混淆되니 官號와 地名을 **借用** 하는것은 나무장사가 『소금사료』를 부르는 그것과가티 나무한개피도 팔수가업는同時에 文章上으로 도리어 俚褻한 편짝이라고 說破하엿다。燕岩의 論法으로 나아갈진댄 서울은 어대까지 서울로 徐鬱을 쓰기怯낼條件이 업는것이로되 淵泉과가튼 正道의 古文家로서 볼진댄 그러한 論法조차 애초부터 危險千萬한 이야기일것이다。古文家들은 燕岩의 一夜九渡河記中『戰車萬乘戰騎萬隊戰砲萬架戰鼓萬坐未足喩其崩塌潰壓之聲』이라는 句를들어서 稱氣의 **誇張** 이라고 하고 또 그의 學士擢記中『月隴高桐入窓玲瓏則依然學士之歩曲欄也風動修竹一網鸞鄭則悦然學士之詠高秋也』라는 句를가저서 低調의 描寫라고 하는데 燕岩의 孔雀館文稿自序에는 갑자기 古語를 생각하고 억지로 經旨를 차저서 謹嚴을 假裝하얏자 畫工을 볼러노코 會像을 그리면서 容貌를 고치어 그眞面目을 잃른것과 다롬이 업다고 辯明하얏다。燕岩의比喩맛다가 제귀에서 무슨소리가난다고 동무에게 드르라고하지만 남의 귀ㅅ속소리는드를길이 업고 자기가 코를 골리가 잇느냐고 남이 흉보는 것을 섯내어 否認하지만 자기의 잘때일은 알케가 못되는지라 그네들 頑固한 古文家가 코고는 自家의 버릇을 否認하고 自家 個人의 귀ㅅ속소리를 **燕岩** 이 못 듯는다고 변보듯 흉보듯 하더라 도 決코 怪異한 現象은 아니다。

燕岩은 李德懋의 嬰處 稿에 序文을 쓰면서 그의 詩가 俗되어 古人과 갓지 못 하다는 어떤 사람의 評을 前提한다음거기 反駁하야 一場 自家一流의 文章論을 陳述하얏다。燕岩의말대로 하면 옛날을 말미아마지금을 볼때는 지금의 俗됨이事實이나 옛사람이 스스로 볼때는 그역시 한個의 지금이어니 千秋萬歲뒤는 지금의 俗됨도다시 古代的 典雅味를 띄우게될것이 아니냐는 것이다。果然 그러치 안 한가? 古文家가 字字句句를 외우고 또 빼에 삭이는 先秦의 經傳과 **諸子** 드 大槪는 그時代 그 地方의 俚言 俗語로써 이루어진 것이리라。그글에서 燕岩은 다시 한거름 내키어 李德懋는 朝鮮사람이라 山川도 中華가아니요 言語도 漢唐이 아닌데中華의 法을 模倣하고 漢唐의體를 踏襲한대야 法이 노플수록 뜻이 낫고 體가 가틀수록 말이 거짓된다고 하얏다。또그만으로도 그치지 안코 다시 한거름 더 내키어 燕岩은 朝鮮이 決코 적은땅이아니요 羅麗로부터 美俗이 만흐니 그 方言과 民謠를 살리어 노는곳에 文章의 眞機가 發現되리라고하얏다 彫虫小技의 古文家로서는 百을모고 千을듯거도 단한마듸의이러한말을 이르지못하리라。아니 그時代 그 **環境** 에 處한 그로서 어떠케 文學에 對하야 超逸한 見解와 眞摯한 態度를 所有할수 잇섯슬까? 唐人中 唐突히 李杜의 高下를 따지는 무리가 잇서서 韓退之는 蚍蜉撼大樹의 詩句를 읊기에 어르렀섯다。燕岩의 文章을 云云하는 분들께 向하야 나는 敢히 한번 退之의 이 詩句를 記憶하나 못 하나 못고 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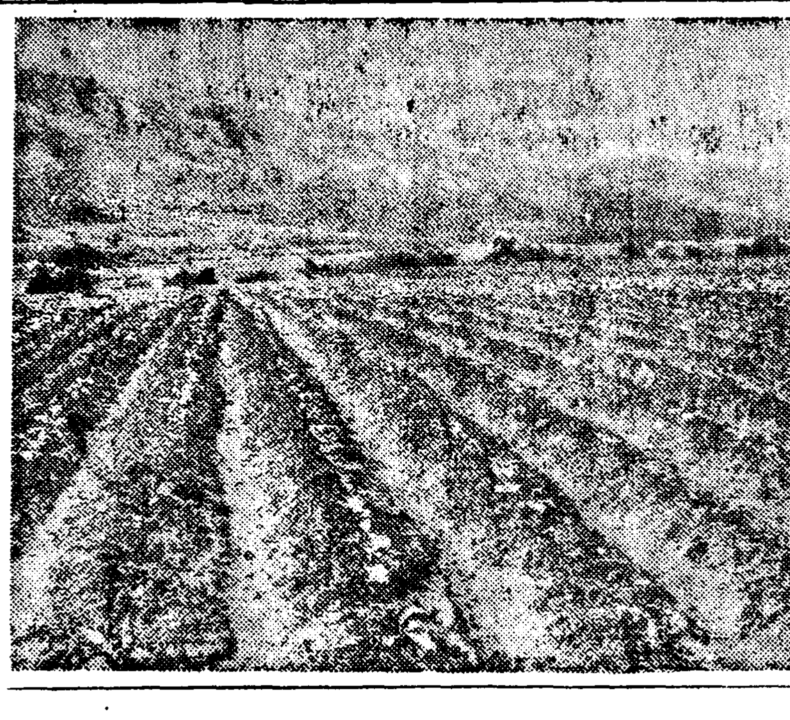
軍艦가 軍浦되다
傳하는말슴
어니때 어니軍士
배를렷든고
凄凉한 華城將臺
訪花隨柳亭

綠草淸江行

懷憶속에잠기는巡禮心 ❷

李殷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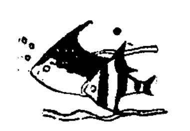
花山의 옥은솔도
말이엇구려
安城川 지낫다네
忠信堂을로고
눈수버들 天安여
여기로고나
小井里 西南山을
거픈지속
廣德寺 오랜절이
지금어덴고
十里를 느린버들
푸른그늘에
매암이 떼를지어
우는저소리
全東川 언덕우에
草家두어집
밧매는 아비어며
情다운살림
鳥川이 美湖川이
마주흘른곳
蔚衣잠 이룬 노픈
鳥致院이데
靑으로 물드린
너른벌판에
서고날고 鶴두루며
히도히고나
막힌듯 돌아돌아
열린물길이
잔잔한 百里美江
꿈속가튼데
梅浦는 寂寞하다
긴모래우에
물새만 두세마리
나르는고나
다드밋돌 新灘津
지나가면서
한낫인채 가을밤을
생각하자니
크게도 열린고을
예가어듸냐
놀라보니 어느덧
『한밧』이구려
湖南으로 가는길
예서나뉘어
갈라서자 다시보니
佳水院인데
예부터 白水黑石
어릴난곳이
그바로 여기던가
다시또보고
豆溪라 적은마술
지나가면서
창밧글 찻는뜻이
무어인가요
제철아닌 감이야
볼것업스리
울하참 鷄龍山이
저기로구나
李太祖첫 都邑을
여기열라고
달구질 하다말고
옴기시더니
오늘은 부러워라
저기저農軍
저절로 시골두거
잘되엇구나
連山이라 開泰寺
헐린자리에
千年을 비바람만
지나가누나
집업는 觀世音像
가엽다마소
大慈悲 제本性어
그럴게지오
灌燭寺 恩津彌勒
無心하신지
복가을 大法會에
무엇주시나
한여름 맘홀리는
나그네눈에
大屯山 푸른그늘
저게조쿠려
論山이 江景이
너른벌판이
어데도 굽는이
엇다는말이
비노니 雨順風調
짤토이어서
골고로 人間佚樂
되옵치어다



(寫眞은 湖南沿邊의平野)

—隨筆— 저녁때 ❶

朴魯甲



【一】

올은 봄부터 여름까지 세번 고향길을 줄다름 첫다。세번 다 아버지의 병환 때문이엇다。

두번은 업고 나려갓든 의복을 그대로 업고 올라왓스나 세번재는 상복을 업고 올라왓다。

올려 유월 초힐헷날! 여날 저녁새때쯤 우뢰치고 소나기가 퍼부엇다。이 소나기가 오기 약 두시간 전에 아버지는 운명을 하시엇다。

일흔 일곱해를 두고 누리시든숨결을 가장 짧시간、단한마듸에 마지막 지우시든 그 기억이 새로워질수록 나는 아버지를 여윈스럼에 녀무도 허탄한 인생에 대한스럼까지 함하야 울지안흘수업섯다。

워둔을 온 손들중에 가장 슬프게 조상을하는이는 대개 아버지와 연갑된 노인이엇다 노인들은 노인들끼리 안저서 영혼이야기를 하엿다。노인들중에는 영혼이업다고 반대 하는이는 한분도업섯다。

전생、차생、후생、삼생으로 순환무궁한것을 주장하는것은 아니엇다。

『우리네 별수 업는 인생이야영웅이들오래 갈수 잇나! 그저 몃해 가겟지』하는 의논이 가장 근원으로 그들을 지배하는것이엇다。

사람이 죽은 뒤에도 영혼이 잇다는 그들의 주장은자람이 죽은 뒤에 영혼이라도 남어 잇스면 조켓다는 그들의 원망을 기초로 한것일테이다。

『해마다 꼿은 가튼 꼿이피는데!』

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번 가면다시 못오는 것을한탄한도 하여 왓다。

『금년에 피인꼿이 어찌작년에피엇든꼿이오。당신의아들이 당신이 아닌것이나 마찬가지지요。』

하고 보면 해마다 철을마저 푸른풀을 또한 그리다는 감밧한 설명이 자연도 나올터이다。

어모든 변화를 가장 노픈곳에서 몃천번 몃만번 독차지로 나려다 보아 왓다는 해와달도 결국은 수한이 잇다는 설설한 설명까지 우리는 들어오지 안엇나!

왜 우리는 죽엄을 실혀 하고 삶을 조와하고 잇는것을 조와하고 업서지는것을 실혀할고?

진시왕과 한무제가 실패한 뒤로는 권력을 부려어 죽엄을 초월할 꿈을 꾼 사람이 업고 눈으로는 볼수업는 영혼의 어야기가 떳업는 인생의 구절구절을 꾸며보려 애만쓰지 안햇나。가장 영리한 시인 백락천은

『소나무 천년을 살다 한들 마침내 석고 말지 안는가 무궁화하루를 피엇다 진들 그도 또한 영화로세』

읊조려 보앗다。

이말을 누가 굴하하랴。마는 이지와 감정이 서로 맛지 안는 모틀 한 모롱이에 소게 불행이엇다고나 할까。

차라리 세상에서 업서질 몸일진대 나는 어러한 공상도 하여 보앗다。

사람이 살다 죽을 임시가되거든 두 겨드랑이에 날개가 나야겟다 하만 하여도 조코 그게 너무 크거든 제비만 하여도조타。

어 제비만한 사람새가 망망한 창공을 날르고 날르는 새에 녹아 업서지는 줄 모르게업서진다는 것이다。

이얼마나 깨끗하고 시원한 장사법이될것인가! 좁고기픈 흙구덩이에 흙은 혹독히도불블근 아궁이에 산사람들노죽은이에게 하대를 더할필요도 업지안흘까。

鍊金術

湯淺氏의『대추』

巴朋生

『中央公論』七月號에 湯淺克衛氏의『대추』(棗)라는小說이揭載되엇다。나의알기에는 氏는 早稻田高等學院時代에는 學生運動의 一部의 리ー더ー어엇다。氏는 어렷슬때에 朝鮮水原에 살은 적이잇다고 記憶하고잇다。

『대추』라는 이小說은 內鮮融和를 題材로 取扱하야 興味잇는 一面을 보여주고 잇다。本妻를 故鄕에둔 東京留學의 朝鮮人靑年이 下宿집딸『오까네』와 結婚한 뒤 歸鄕하야 太郞이란 아들을 낫코 살어나가는것을 그리고잇다。朝鮮의作家들이 敢히 取扱치도못할問題이나 또 이런것을 題材로한것을 드물게보는터이므로 新進作家다운 新鮮한맛이잇섯다。단지 金大吉이라는 東京留學生의 性格創造에는 多分히 人爲的인곳이잇서 風俗과倫理關係의 지나친誇張과 아울러 눈에 거실리는것이 흠이엇스나 이러한데도不拘하고 이作者等類가 朝鮮와서사는 他地方사람의 最大級의 朝鮮理解者가아닌가하고 생각하엿다。大陸風을 보일려는듯한 거출고 널직한描寫는 細密한描寫를卒業하고 到達한듯한느낌이업고 어덴지 空中에 뜬듯한 不安을 주는것은 흠이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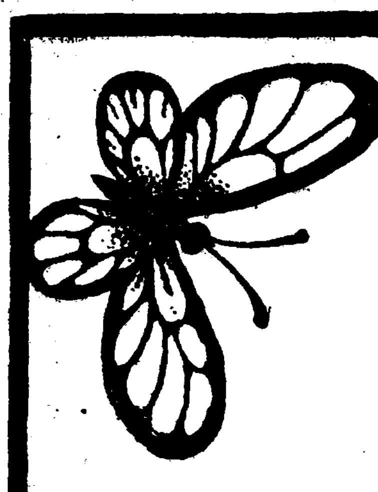
그리고『鮮童』이라고 쓰는『チョンガヤ』라고『鮮女』라고쓰는『オモニー』라고吐를다른것은 여간 不快치엇다。어쨋든朝鮮의作家나或은 讀者가 一讀할만한作品이다。

新刊紹介

◆藥理實際 第六十號(月二回)發行所 京城府桑町三一 基督敎朝鮮藥理學會理院 振替京城一八三七三番 定價一部五錢

◆鮮北佛敎 第十二號(月刊)發行所 大邱府鄕山町二六一 鮮北佛敎協會

▲朴泰鉉童謠作曲集 第一輯 發行所 京城府新堂町三〇四의一四一 白鳥社 定價五十錢 送料共 發行所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 아이생활社 振替京城一五一五一番



001516

좋은향기가 오래가는!

オリヂナル香水 (오리지나루향수)

原料香水

오늘의空函(빈상자)가 내일에는洋傘으로!

빈상자한개로다음과갓흔景品을 二十五名중한분이타시는률로써

高級婦人用晴雨兼用洋傘이 꼭당선되는

애용자 대우대는 七月三十日까지

締切을嚴守함니다

★八月上旬에추첨을한후 當選者에게 상품을속히보내드리기위하야 八月一日以後의 郵便局消印잇는것은 유감이오나 無効로하겟슴니다

應募方法

오리지나루香水의空函에다 住所氏名을明記하시고 宅근처 販賣店에 依賴하시든가 또는 直接 本舖로 보내주시면 廿五枚에對하야 一本當選의率로써 부인용 高級晴雨兼用 洋傘을進呈함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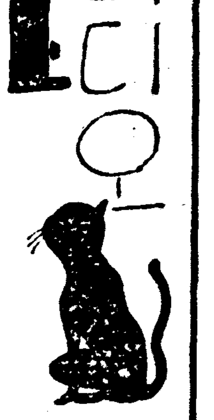
★注意 빈상자를붓치실때에는 封書로하야 二十五(約五匁)마다 四錢우표를 붓처주시압

◉또右期間中 오리지나루香水를사주시는분에게販賣店(포스타ー가걸녀잇는)에서가오ー루五錢봉지를빠짐업서 進呈함니다

東京市日本橋區水天宮前

本舖 安藤井篤盛堂

라디오



二十七日(火曜)

◇午後六時三〇分 이야기「어찌어째그런가?」 尹石重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同七時 趣味講演 江낙시진이야기 尹愼榮
◇同八時 更生農家體驗談(第一回)
一、更生하는우리집經驗 全羅北道 趙鎔駿
一、우리집의更生體驗談 全羅南道 張日烈
◇同八時三〇分 一、새打鈴 二、六字백이 三、興打鈴 四、개고리打鈴 金素姬 金秦玉
◇同九時 獨唱 一、노래의날개 안-作曲 二、브리타작 사러르作曲 三、어이 朴泰俊作曲 四、手길들엔 李興烈作曲 五、歌劇「假面舞踏會」中에서 베르디作曲 六、歌劇「트라비아타」中에서 베르디作曲 散亂한가슴 金大根 피아노伴奏 金駿泳
◇同九時五〇分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〇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國語)레코-드音樂 —(國語)(京城)—

第二放送
◇同六時(廳) 天然記念物
◇同六時三〇分(東) 이야기
◇同七時三〇分(仙秋山) 水傀謠
◇同七時五〇分(東) 國民歌謠
◇同八時(城) 時局講演
◇同八時二〇分(城) 管絃樂
◇同八時五〇分(東) 浪花節

二十八日(水曜)

◇午前一一時一五分 衛生講演 金光鉉
◇午後〇時五分 京畿立唱 一、놀량 二、앞산打鈴 三、뒷산打鈴 四、개고리打鈴 五、자진방아打鈴 崔完俊 韓仁學 柳開東
◇同〇時五五分 野球試合實況 (國語)—京城球場으로부터中繼—全國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朝鮮豫選
◇同六時三〇分 노래공부(一) 一、하-모니카 二、작은별 朴景姬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外國演說賞세분
◇同七時 趣味講演 감상이야기 李一
◇同八時 時局講座 白寬洙
◇同八時三〇分 音律 鍾山會 朝鮮正樂傳習所
◇同八時五〇分 라디오小說「편지」金末峰作 沈影
◇同九時一〇分 一、사발가 二、青春歌 三、念佛 四、긴아리 五、打鈴 張鶴仙 金秋月

第二放送
◇午後〇時五分(東) 和洋合奏
◇同六時(富) 記念物語
◇同六時三〇分(東) 童話
◇同七時三〇分(東) 座談
◇同八時(東) 講演
◇同八時三〇分(東) 管絃樂
◇同八時五〇分(大) 義太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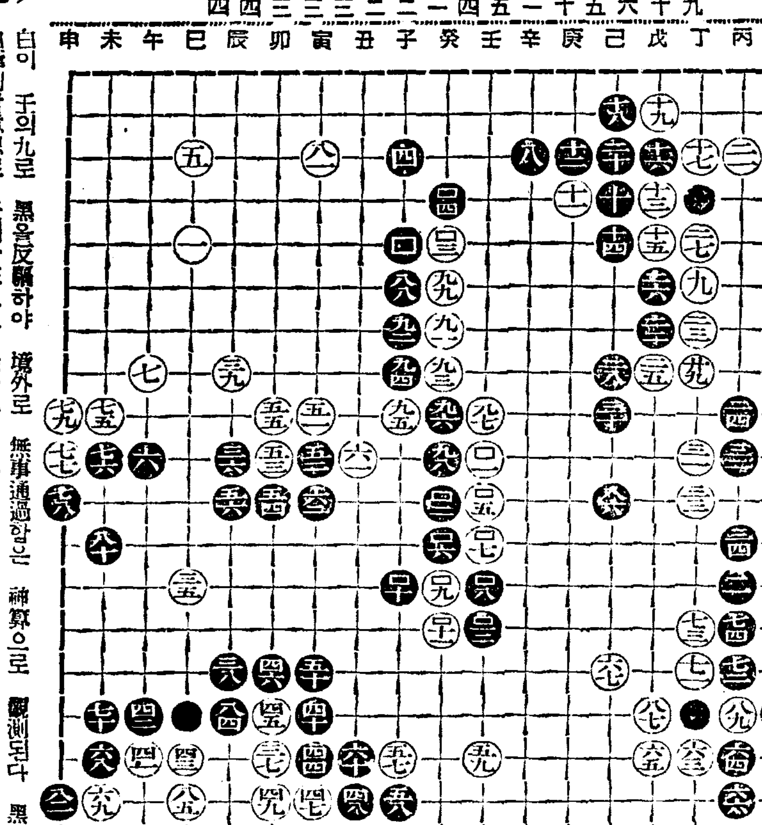
二十九日(木曜)

◇午前一一時一五分 講演 女子人計算軒이야기 文一平
◇午後〇時五分(東) 木曜코서-트 레코-드音樂
◇同一時五〇分 野球試合實況 (國語)—京城球場으로부터中繼—全國中等學校優勝野球大會朝鮮豫選
◇同六時三〇分 노래공부(二) 一、하-모니카 二、작은별 朴景嬉
◇同六時五五分 어린이新聞 外國演說賞세분
◇同七時 經典解說 金顯大
◇同八時 農村講座(二)稻의病害와防除法 金雄珉
◇同八時三〇分 一、도라지打鈴 二、興打鈴 三、늴리리야 四、오돌독 李眞紅 細田 姜錦洙 短簫 崔壽成
◇同八時五〇分(平)라디오드라마 "가을花壇"(全一幕) 配役 崔氏(어머니)鄭婦 哉信 (그의딸)玉英娘 玉峰 (詩人)曹仁奎 泰伊(教員)韓正姬 福德(戰末의戀人)石華謙 이웃婦人甲 朴特賢 同乙 柳明玉 嘉祺鳥 金玉順 配達夫鉉石 平讓美蓉會 演出 朴信哲

第二放送
◇午後六時(熊) 天然記念物
◇同六時三〇分(東) 歌物語
◇同七時三〇分(城) 鰺山漁村時間
◇同八時(東) 長唄
◇同八時二五分(東) 風琴
◇同八時四五分(東) 俗曲
◇同八時五五分(東) 講談

本社主催 圍棋對局譜 (7)

白 廣瀨仲子
黑 第三新局 尹昊鉉



○九七 壬의九 ●九八 癸의十 ○九九 癸의六 ●一〇〇 子의五 ○一〇一 壬의十 ●一〇二 癸의十一 ○一〇三 癸의五 ●一〇四 癸의四 ○一〇五 壬의十一 ●一〇六 癸의十二 ○一〇七 壬의十二 ●一〇八 壬의十三 ○一〇九 癸의十三 ●一一〇 子의十三 ○一一一 癸의十四 ●一一二 壬의十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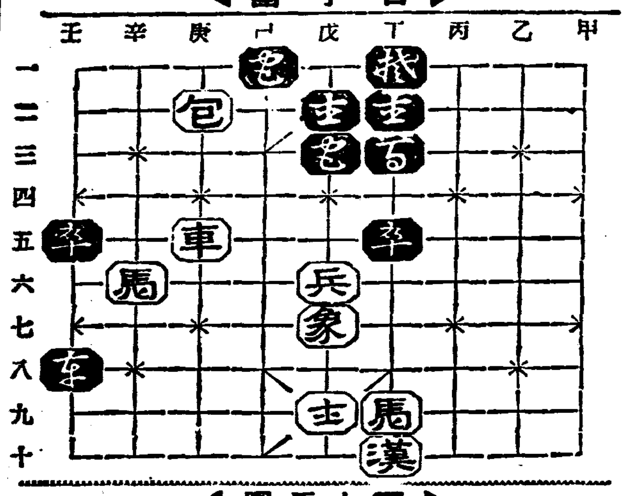
觀戰記

白이 壬의九로 黑을反騙하야 境外로 無難通過한은 神算으로 白牽制할意思로 壬의十三으로 除하고 白은 黑陣取할秘計로 觀測된다 黑은 癸十三黑後稜을 防하니 形態는 彼此間隱藏가 潛伏한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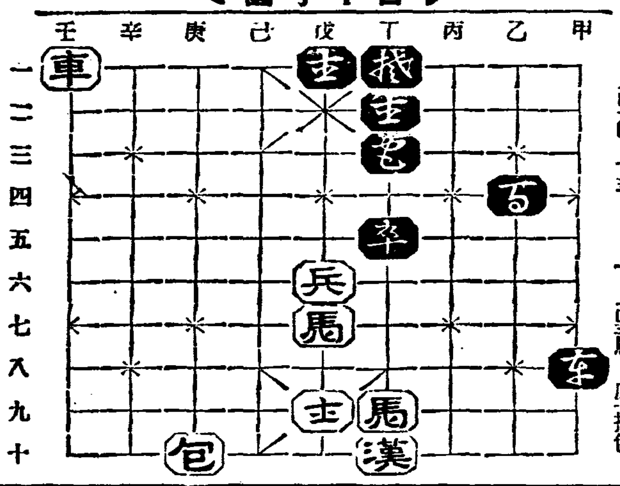
本社主催 將棋名手對局譜(十一)

漢 李在風 楚先手 許鏞

百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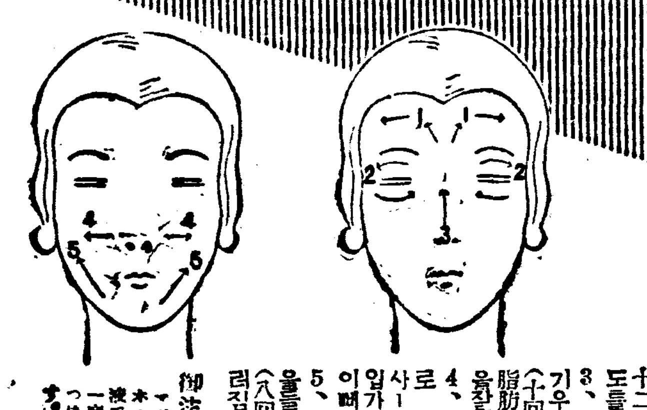


百十手圖



壬六卒—甲八
庚三包—庚十
丁三士—乙四
庚五車—壬五打卒
己士—丁三
壬五車—壬一呼將
戊二士—戊一
辛二馬—己五
戊一士—戊七打象
己五馬—戊七打包

手軽にお家庭で出來る若返り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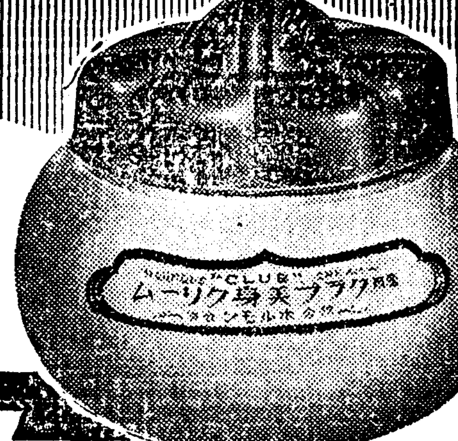
朝夕으로요만한것은實行해주십시요

본바탕부터 젊고어여쁘젓스면하는 여러분의痛切한所願은 다음의구라부호루몬맛사-지法을繼續함으로서 達成할수잇습니다

正當한맛사-지의順序!

1、먼저 얼골全體에호루몬配合의구라부美身크림을 잘펴발르고 이마의中間에서 左右로맛사-지합니다 (八回-十回쯤)이마의 주름살이自然防止됩니다
2、눈가에는別圖의方向으로손끗으로두들기는듯맛사-지합니다 (十回-十二回쯤)잔주름과 도틀도틀한주름을防止합니다
3、코는 螺旋을그리듯기우으로맛사-지합니다(十回-十二回)不必要한脂肪을 防止하고 白粉을잘맛게합니다
4、코엽과 입가部分으로 귀쪽에조곰시게맛사-지합니다(十-十二回쯤)입가와뺨이 도드록하게이빠집니다。
5、턱으로뺨사이를올들여 맛사-지합니다(八回-十回)장력과 느러짐을防止합니다

御注意 マッサーヂがすみましたらホルモン化粧水のクラブ乳液でふきとり、もう一度クラブ美身クリームをつけて紫粧を與へて頂きます。



藥用 ムーリク美身ブラク (구라부美身크림)

強度호루몬含有

綜合ホルモン이 科學的으로젊음과美를創造

호루몬이 살로吸收되야 젊음과 美를創造하고、주름과 느러짐을 防止한다는……호루몬美容學說이 第三十五回婦人科學大會席上에서 다시금確定되엿습니다。

美容의大家나 皮膚科의權威가 推奬하는 家庭에서 될수잇는 가장 効果的인 젊어지는 法이야말로藥用구라부美身크림에依한 호루몬의塗擦療法입니다。 藥用구라부美身크림이 쓱쓱젊어지는 効果의實績을 들고잇는것도 道理、極히 強度의 綜合호루몬이 吸收助長劑의힘으로 皮膚의深部에吸收되야 細胞組織에 活力을주고 주름과느러짐을 防止하고 또膵臟酵素의美白作用이科學的으로 보기흉한 여드름죽은깨를 豫防하기때문입니다。

또 白粉下에 벗겨름을防止에도 藥用구라부美身크림이 非常히 効果的이라고 專히 評判입니다。

味の素 (아지노모도)

(登錄商標)

養毛美髮의第一이다 美孃香油 美孃ポマード

胃腸病特效藥 內用電氣 即治水

効能 急性慢性胃腸カタル、胃痛、嘔吐、下痢、其他胃腸病에特効가有함
藥價 四圓 一圓 不士水
京城府藥劑町二〇九 振替京城六〇七三番 漢城藥舘本店

淸血排毒特效藥 海草精

壹瓶(一個月分)三圓六十錢 京城鍾路六丁目二八七 ホルモン醫化學硏究所

脚氣の治療と予防に

(1) 오리자닝은、脚氣의原因을除去하는藥인대 그治效와豫防効力의顯著確實함은多數實驗報文이 立證하는바이다。
(2) 오리자닝은、脚氣의重症과 中等症에는普通藥用量의 一倍半乃至二倍量을 數日間連用하도록勸하며 內服不能 또는 衝心等의 危險期에는注射劑를 適用하고 治効가 나타남에따라 普通藥用量 或은 그以下로 減量해서 全快까지 連用하는것이 常法이다。
(3) 脚氣의 豫防에는 普通藥用量의 半量을 連用하야 目的을 達할수가 잇다고한다。

オリザニン (오리자닝)

祖始のビタミンB
鈴木博士帝國學士院受賞の發明品

內服用 (ビタミンB複合體) 錠、末、液、エキス、各種
注射用 (純ビタミンB₁結晶製品) 普通品、三倍品、五倍品、十倍品、二十倍品及四十倍品各種あり

오리자닝은 脚氣以外 여러가지의 醫治効用을가젓다。

(詳細說明書에잇슴 御申請次第進呈)

元賣發造製 東京・室町 三共株式會社

只今 로-쓰仁丹十錢包(百五十粒入)에 美麗한琥珀瓷器漏落업시添附

明治座

7月21日より25日まで 上映時間表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京日ニュース	1130	307	700
明朗色時代	1150	327	720
北支事變ニュース	119	456	855
神秘は男	143	519	918

往十里町 光武劇場

◎일음을이즌사나히 四幕
◎市街戰 四幕
◎옷는설음우는樂園 三幕
◎꿋업는花園 五幕
◎港口의小夜曲 三幕
◎어린이야웨우니 二幕
◎그女子를死刑하기까지 三幕
▲絢爛舞蹈獨步的바라에데! 幕間—단센스、獨唱、舞踊、스켓치、合唱、民謠
藝苑座主幹金蓮盛

永樂町 中央館 本三〇四

毎日晝夜二回興行 第一回 一、二、 第二回 七、
滿都人氣歡呼雷聲裡에堂堂續演
◇七月廿五日부터卅日까지 滿員!滿員超滿員第二週續演
名劇團藝苑座公演 六十餘名大멘버의豪華陣容! 每夜八時開演
【順次上演藝題】夜間限 (藝題每夜交換上演)

コロムビア大超作大連續映畫 名古屋 馬 リツレクス 主演
神馬ツレクスの復讐 第五篇・六・七・八卷 全
大都映畫超特作連續時代劇 近衛十四郎 大河百代百合主演
疾風蝙蝠 前篇・後篇 全十六卷上映
二十七日より三十日マデ 四日間 階下席十錢均一

東洋劇場

『演習하는夫婦싸움』一幕
快笑一夜眞千金! 이喜劇가야말로萬人의허리를분질느것인고는마지안을劇中의白眉篇!
◇東劇自慢의名喜劇▼ 九月山人作
『男兒行狀記』全四幕
男兒한번世上에나서 무엇이나? 都會의大規模에 心血을기우려한 劇作家 林仙圭君의 快作!
七月二十一日부터 午後一時半 七時半 第四週
劇團 青春座 全月演 ▲無雙傑作上演週間 ▲上演劇本▼林仙圭快作篇

中部版

金浦童話大會盛況

【金浦】지난이십사일오후팔시에 김포교회당에서 본보김포지국후원하에 남양동화대회가 개최되엿는데 정각전에 입장자가대만원을 이루워 입추의여지도 업스리만큼 약삼백명의 입장자가 잇섯다 먼저 경사백(金景益)씨의 개회사를 뒤이어 조민형(趙敏衡)씨의 『서낭자사소녀』라는 자미잇는 동화와 정준(鄭濬)씨의 『도적의최후』라는 동화가 잇섯고 그외에도 유희와 동요도 잇서 대성황을 어루웟섯다

營利一貫의京電에 京南住民의非難高

三伏暴炎下에廿分以上待車 一키로에도一區料金을徵收

허울만조흔梨泰院行빼스線

【京南】경남일대 주민들의 다년간 숙망이엿든 신룡산 삼각지(三角地)와 이태원(梨泰院)간『빼스』가 지난삼월부터 개통되여이때를 고대하고잇든 주민들은 다년간숙망을 이루웟다고 일시는 히약하엿스나 그와반면에 경전(京電)에 대한주민들의 불평이 자자하다고한다

그 원인을 들어보건대 삼각지에서 이태원 까지라고 하여 운전하는 『빼스』종점까지는 불과일키로에 지나지못하는데 운임은 일구(一區)의 료금을바드며 그우에 또 이사이에『빼스』한대를 가지고 운전함으로 한번 왕복하자면 기달리는 시간이 십오분 내지 삼십분가량이나 걸리며 언제나 초만원을일우어 승객들은 대한실도업는 폭양미테서 몬지를 마셔가며 기다리다못하여 성미가급한 승객은 삼각지까지 도보를하는것이 상례라한다 그거나마도 경전에서 자충이태원까지라고하여 운전하고잇는종점은 적어도 이태원까지는 오륙백미돌이나 거리가잇는 한강로구번지이며 원래경남일대주민들이숙망하는삼각지 서빙고(西氷庫)간 운전은고사하고 마지못해 이태원까지라고 구실하여 운전하는것이 이모양이니 경전에서 승객들에게대하여 얼마나무관심하며 어로지 자기들의 영리만을취함이 아닌가하는 폭론들이 자자하며 경전의 자각과당국의 취체를요망하고잇다한다

島谷베스係長談

별항=리태원행〃빼―스〃문제에관하야 이십칠일오전중에 경전회사로 빼스계장 도곡(島谷)씨를 방문햇드니 다음과가티매우 불분명한 답변을하엿다

나는 빼스계장으로 전임된지 며칠못되여서 모든사정을 잘 알수업스니 소송(小松)전차과장에게가서 무러보시요 전임자중촌(中村)씨가 잘아시는바이나 지금은회사에 잇지아니하오운운

회원의강사 박삼진(朴三辰)씨의 노력으로 농촌아동 교양에만흔공헌이잇다함은 주지한바와 갓거니와 금번북지사변에대하야 미력이나마 성의를표하고자원아오십명이 여전히거출하야 동금액을본보의 지국을통하야 국방헌금을의뢰하얏다한다

仁川武道館創立

十週年의記念式盛大 講師柳昌浩氏를表彰

【仁川】인천부율목정(栗木町)언덕우에 위풍당당하게 소사잇는 인천무도관은 금번칠월로 십주년을 맛게되자 도우회(道友會)주최로 십주년기념식과 교수표창식을 지난이십륙일오후팔시부터 하냥을두를흐한 도시당(都是堂) 도시의(都是義)라는 장엄한무도가로써 개식하자 동관고문최진하(崔晋夏)씨의 동관교수유창호(柳昌浩)씨에대한 약력을설명하엿다 동관은 지금으로부터 십년전에 경정(京町)창고를 빌리여수명의 도우를양성하야오다가 동관을 송림정에신축하고 회원까지 경영하여왓스나 답지하는원아 도우도 도장의협착을느끼여 총재김윤복(金允福)씨와교수의 각별한노력으로 현도장을유지하게되엿다한다 이여서 강관원(姜寬遠)씨로부터 노부겨운·정인갑부도계의권사를 망한후거련총장이 잇슨다음 동십시경에대성황리에폐회하얏다한다

平和祈禱會

【仁川】선종대본산봉은사인천포교소(禪宗大本山奉恩寺仁川布敎所)에서는 북지(北支)사변에대하야 열리라도속도를 올리기로하야 지난일부터 시국의평정을엇고자 평화기원을 오후 일곱시부터 구시까지라한다

不在軍人家庭에 八人組少年窃盜出沒

仁川署員에게一團全部被捉

【仁川】작금인천부내에는 신출괴몰로 횡행하고잇는 절도의피해가적지안타는 정보가 매일가티답지하야 강전(岡田)형사부장박(朴)형사는 지난이십오일 오전삼시 시내공설시장에 잠복하고잇는데 천안읍(天安邑)최병남(崔丙南)(一八)외의칠명을검거하고 방금엄중취조중이라는데 그들은 시국의불안한것을 기화로 출정군인의가정등을 출몰한 대담무쌍한절도이라한다

道內各種團體의結束提携를强調

京畿道에서管內에通牒

총독부에서 얼마전에 전조선의 유력한각종단체를 결합하야 조선군사후원 련맹을 결성하야 각도에 대하야도 이에순응할뜻에 통달하엿던바 경기도에서는 도내 각종단체의 결속제휴를강조하는동시에 이십륙일부 내무부장통첩으로써 경성、인천(仁川) 개성(開城)의각부윤에 대하야도 그와가티 선처하도록 재촉하엿다

九月學院서도獻金

【仁川】부천군문학면구월리(富川郡文鶴面九月里) 구월학원아동

分分모아獻金 華川公普兒童도

【華川】강원도화천공립보통학교에서는 지난이십사일 동교생도 사백오십여명의 순진한국방헌금에 직원의출금을합하야 금삼십일원사십칠전을 화천경찰서에 저와승으로 화천서에서는 전일화천군속신원재(愼源縡)씨의 미거에계속하야 학교직원생도의적성에 감격하야 즉시조선군사령부애국부에 헌금수속을 하얏다 한다

記錄的暴暑征服 仁川서昇段試合

武道館에서盛大擧行

【仁川】인천무도관(仁川武道舘)에서는 례년에의하야 백도에가까운폭서미테서 류창호(柳昌浩)씨의엄격한심판하에 지난이십사일오후팔시부터 승단시합을거행한바 승단승급자삼십구명에게 이십륙일에는 증서수여식을성대히 종료하엿는데 승단자는 다음과 갓다한다

初段 玄惠編 柳榮鉉 金鎭亭 金昌培 文正浩 柳永浩 李鐘雲 金永秀 李任玉 외 蔡元 韓昌根

先

一級甲 金東春 宋公三 乙鄭德

二級甲 李龍王 乙金聖烈 金文

起

三級甲 柳煒 朴範男

四級甲 金道平 乙柳明奎外六人

五級 李宗裕外六人

六級 金應善外三人

少年四級 金泰益 永根

夏期兒童聖經學校

【金浦】지난이십사일 오전팔시부터 김포읍기독교회에서는 하기아동성경학교를 개학하엿다는데 기간은이주일간이라하며 강사는 다음과갓다고한다

金景益 鄭濬 黃奇男 金永一 金正由 金鎭璽 吳容順 朴燕 金南鉉 金麗愛 劉舜信 崔

華燭殿堂化한府民館

半年間에結婚式一三四回 그다음은懇談會로一二〇回의多數

지난일월부터 륙월까지 반년동안 경성부민관(府民舘)의 사용한수를보면 전부칠백팔십이회인데 그가운데 결혼(結婚)의일백삼십사회가첫재이며 그다음은간담회(懇談會)일백이십회이고 셋재로는 음악무용(音樂舞踊)륙십사회 넷재로는 연극 오십오회엿고 그다음으로는영화(映畵) 연회(宴會)등의 순서이엿다

忠北移秧完畢

【淸州】충북도산업과에서 조사한바에 의하면 충북도내의 이앙상황은 지난십사일로써 전부완료되엇다한다 그 이앙면적은 륙만칠천삼백이정륙단보로서 전년에 비하면 이백오십여정보의 감소로 그원인은 규반(畦畔)면적을 가산치안흔까닭이라고하는바 이앙면적을 군별로 적으면 다음과갓다

郡別	移秧面積
淸州	一六、一九九町一反
報恩	五、三四〇、七
沃川	四、六一一、〇
永同	五、三二二、四
鎭川	五、三七八、七
槐山	六、九七八、二
陰城	七、八八二、三
忠州	八、九三三、八
堤川	四、六三九、一
丹陽	二、〇二七、一
計	六七、三〇二、六
前	六七、五五四、一

西氷庫精米業者가 "듀럭"運輸會社設立

資本金四萬圓은發起人이出資 實現되면牛車夫生活威脅

【京南】부내 서빙고(西氷庫)모씨가 중심이되여 팔개정미소가 결합하여 서빙고경성간『듀럭』운수회사를 설립계획중인데 그계획의내용을 들어보건대 현재 서빙고 팔개소정미소에서 매일 산출하는 백미현미(白米玄米)수량이 평균일천삼사백가마니인데 그운임이 매가마니 십삼전식이다 그것을 발기인들인 정미업자가 출자하여 사만원의 운수회사를 설립하고 자족자급으로경영하여 나가겟다하며 이회사가설립되는때에는 현재우차를가지고 정미소의쌀을운반하야생계를 세워나가는 수십명 우차부(牛車夫)와 그들이 거느리는수백명의 가족들은 장차어떠케될까하야 경남일대의 큰사회문제가되고잇다한다

짝사랑의술꾼이 姙婦에暴行落胎

女子는鐵原邑의美人

【平康】미모의 묘령여자에게홀리여 짝사랑에울다가 사랑에실패하고 결국구타사건으로 말성이된사건이잇다 탐문한바에의하면 철원읍 한대천(가명)(二)은철원모요리점 창수(가명)의 첩 백금주(가명)의 아름다움에 홀리여 술을 마시러가나 늘짝사랑으로기회를 엿보고잇섯든바 마침그의남편이 출타한것을 알게되여지난이십오일밤 새로두시나 되엿슬때에 그여자의 침방에 칩입하야 사랑을 호소하든중 뜻대로성공못한것을 분히여이여 결국구타까지하게되여 말성이생기엿다는데 그여자는 드물게볼수잇는 미인으로 평판이노팟던바 의외의봉변을당하고 엄신중의몸으로 이가든를 시경에 그만유산하고 철원에 입원중에잇다는데 한화제꺼리가되어잇다한다

平康에도染病猖獗 現在患者만十二名

【平康】평강군 고삽면근남리영강이민부락(平康郡高揷面近南里寧康移民部落)에는 장질부사(腸窒扶斯) 환자가 발생하야부락민은 심히 우려중이던바요사이와서는점점 만연(蔓延)되야현재판명된 환자수가십이명이나되야 당국위생계(衛生係)에서는예방(豫防)에 노력중이라 한다

水原高農生淸州視察

【淸州】수원고등농림학교 (水原高農)부설농업교원양성소학생 십구명은 동교유진남(東莚男)씨인솔하에 지난이십륙일청주에왓는데 동일행은 청주농사관계의 각방면을 시찰견학코저 온것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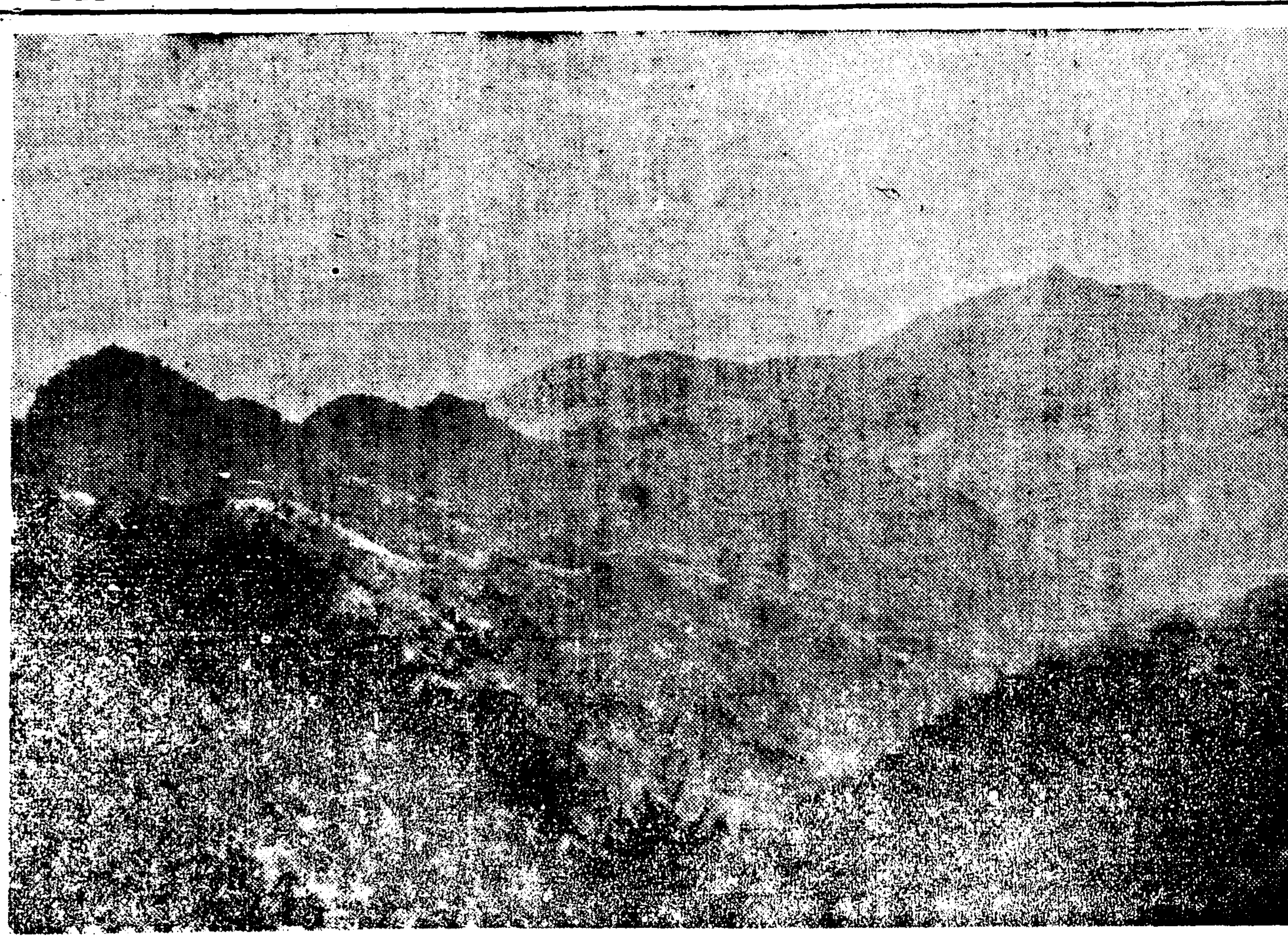
改正體操講習會 五郡의聯合으로

【楊州】오는팔월일일부터 삼일간 양주공립보통학교(楊州公普校)에서 개정학교체조실지지도강습회(改正學校體操實地指導講習會)를 개최한다는데 참가학교는 고양군(高陽)의일부 포천(抱川) 련천(漣川) 가평(加平) 양주(楊州)일원의 각초등학교선생과 학교관계자전부를 망라하리라한다

한잔먹고沐浴타가 昭陽江에서溺死

春川擧頭里의區長으로判明

【春川】춘천읍봉내면거두리(春川邑東內面擧頭里)구장(區長)권덕상(權德相)(三)은지난이십오일 과가티신북면(新北面)농민훈련소(農民訓練所)시찰을갓다가오든길에 오후세시경 소양정(昭陽亭)에서한잔을하고 더위를 이기지못하야 아래소양강(昭陽江)에내려가목욕을 하다가 실수하여물에빠저죽엇는데시체는동일오후여섯시반에야 겨우발견하엿다고한다



다시본近畿의名勝 ❶ (…)

제철맛난月尾島에 浪藉한靑春行狀

바다에는嬰兒屍가떠올랏고 上仁川驛內서는玉童子分娩

【仁川】 백도를근접한 고열에 수욕객의 홍수를이루운 인천(仁川)역두에서는 옥동자를분만하얏고 바다의전당(殿堂)월미도(月尾島)해안에는 임자업는영아시(嬰兒屍)가떠올낫다는 고열을 이용만한 히비의쌍주곡이잇다

▲공주군정안면월산리 (公州郡正安面月山里) 박영만(朴永萬)의 처최경순(崔慶順)(三)은 생활난에못이기여 그의남편과 만삭된 무거운몸으로 행상으로다니다가 지난이십륙일오후일시 상인천(上仁川)역대합실에서 옥동자를분만하얏다는데 때는 마침경성해수욕객이 쇄도한때이라 일시는대혼잡을 일우웟다는데 즉석에서 경정(京町)홍의선(洪宜善)씨의헌금이원의 동정을바더 부근하숙옥에서 정양중이라고

▲지난이십륙일오후이시경월미도(月尾島)서해안에는 엄신팔개월가량된 락태아의시체가 표착되얏다는데 검시한바에의하면락태한것이확실하야 혹시나어는부근주민의 암장한것이나 아닌가하고 방금원인을조사중이라한다

仁川體育會主催 軟式野球大會

申請은八月四日까지

【仁川】인천체육회에서는 본보인천지국후원하에 제일회전인천야구대회를 도산(桃山)그라운드에서 거행키로하얏다는데 기일은 팔월팔일과 십오일양일중인 어라는바 신청은 오는사일까지라하며 참가금은 매단체오원이라한다

仁	川
△時日	八月八、十五兩日間
△場所	桃山 沐山
△申請	四日까지體育會로
△參加金	每團體五圓式

第一回全仁川軟式野球大會

◇主催 仁川體育會

◇後援 朝鮮日報仁川支局

日本産業最高賞 綠綬褒章 御下賜

猪印のみどり粉

벼룩、빈대의 成虫은勿論、幼虫이나 알까지 全滅시킨다!

安住かとり線香本舗 大阪 大住安 藥房 謹製

雨衣都散賣

우장옷

雨衣雨裝シート防水布一切은如何한多量의注文에도應합니다 商店配達自轉車用及作業用各種 紳士用レインコート各種 生男女用各種 市內는電話하시면곳配達하옵고地方은代金引換으로發送합니다

京城光熙門外新堂町 朝鮮防水布製造所 (定價表進呈) 電話本局一〇二二番 振替京城五三七八番

名藥案內

小兒가업스신분께 子宮病이잇스신분

調血精이라는新發明秘方藥을服用하면됩니다 說明書請求次第進呈 京城鍾路四丁目宗廟電車停留所前

日光製藥社

工業指導

『工業用藥品・釀造用品・化粧品原料・菓子原料・各種芳香料・色素及染料・漢藥及賣藥』販賣商

京城府蓮池町七七 日光社工業部 振(京)二五三三二番 支店 滿洲吉林省

朝報案內

外務社員招聘

經驗有無不問하고努力奮鬪의士를求함 二十五歲以上의有給外務社員을招聘、鮮內各地駐在可、希望者는履歷書보내면面會日通知함

京城府長谷川町一二 第一生命保險相互會社 朝鮮支部長 白石一男 電話本局二三三四番

集金

保險集金、廿五才迄希望者ハ履歷書携帶本人來談アレ但シ保證金三百圓及ビ市內確實ナル保證人二名ヲ要ス 會時間午後一時ヨリ三時マテ

京城本町二丁目 株式會社 村木時計店京城出張所

外務社員招聘

一、生活安定親切指導

一、經驗の有無に不拘努力活動家を望む但二十五歲以上

一、希望者は履歷書持參面談に限る

京城府黃金町二丁目五三 愛國生命保險株式會社 京城出張所 崔宇植

尋人

金相仙氏의住所를알고저합니다 通知하여주시는분에겐薄謝進呈하겟슴니다 京城府茶屋町七六 金張 電話本局五八六〇番

ウエスト (機械油試用) 御商 三英商會 京城府公平町六六 電話光二二三九番

恩給 五年分以上特別立替當償引受 又立替 京城林町 八八(孝經橋南側貿屋後) 朴商會

朝鮮文藝會作品發表

崔南善詞 李鍾泰曲 玄濟明

포리도ー루

동산

崔南善詞 李冕相曲 鄭勳謨

포리도ー루 레코ー드 一番号

最大ナル設備ト最古ノ歷史輝キ・技術的權威アル教授網羅

夏期自動車學生大募集 (要案內書請求四錢切手)

▲見ヨ!!冠タリ本校卒業生ノ運轉免許試驗每月合格數第一位ヲ占ム ▲京城府太平通二丁目三六七番地

朝鮮總督府京畿道認可 南大門自動車講習所

▲(第一覆審法院京畿道試驗場前) ▲電話本局八六七 ▲振替口座二二〇五六

天下の銘釀

白鶴

シラナイカ

釀造元 深見釀造場

可認

一、養成全國無試驗開業 醫師同樣聖業

全鮮唯一認可 (失業絕無成功必至)

朝鮮高等電醫學門學院

學則送呈 釜山府榮町一丁目三三

皮膚

◎顔面手足거츠른指間무좀股間습증

チヤージ 챠ー지

◎근질근질한皮膚病에꼭한병만쓰면 영낙업시完治됩니다

여드름、버짐、陰囊濕疹、무좀毒虫、蚊蚤빈대의害의完全治療는チヤージ……터러지안코深部에浸透治療

定價 卅錢、五十錢、一圓 二圓、三圓、五圓

東京神田花房町 出崎帝國堂

萬年筆 月賦販賣

紳士用各種萬年筆을손쉽게月賦로살수잇다(五個月拂)希望者三錢切手添付申込次第規定書進呈

京城府黃金町五丁目二四八 大洋社直輸入部

간질

누구시든지 간질로 고생하시는분은 특효약이 잇사오니 하로밧비 본방으로 문의하시요 약효 무효면 약가를 반송합니다

京城蛤町四〇(佛國領事舘前) 高山藥房 電話光二二四一番

皮膚病!!

무좀、태독、쇠버짐、버짐에 부스럼、백납에

アスター 아스타

團成社

若劇 冷房完備

上映二十八日ヨリ四日間 晝夜二回 大人五〇 學生小人二〇

1 多喜次彌ふ歌 (京大阪の卷) 11・10 2・45 6・40

2 大每・北支事變ニウス 3・45 7・40

3 江戶家 猫八實演 12・20 4・05 7・50

4 女きつ札 1・00 4・45 8・30

(一) PCL東寶新喜劇JO作品明朗時代音樂篇

(三) 突途の餅屋鳴く鬼の宿…猫八師北支皇軍慰問の途中入城實演如來

(四) ベットデーブイス主演W・B作

七月二十六日ヨリ三日間大公開 特別名畵提供期間 每日三回晝夜公演 一回十二時、二回二時二十分 三回七時三十分始映 (綱製上演)三十五錢下加十 大衆料金階下十錢均一

時代名篇 お染半九郞 松竹京都 監督冬島泰三氏

主演 林長二郎氏、伏見信子孃 北見禮子、新妻四郞氏 와ー나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原作후리데리구거부련나氏 監督레이연라이로氏

人情活劇 王ちやん武勇傳

第一劇場 電光一七五五番

西部活劇 山寨의荒鷲 파라마운트 超特作全發聲版 監督하ー드、보레사ー릉氏 主演월리암·보이드氏 기미·에리손孃

七月二十七日부터 納涼朝鮮映畵大會! 京城撮影所超特作全發聲 春香傳 監督 李銘牛 錄音 中川堯史 文藝峰 盧載信 韓一松 主演 金英淑 朴齊行 李鍾哲 金英淑 助演

京城撮影所特作 東亞日報社連載小說映畵化 原作脚色 李台南 大盜傳 監督 金蘇峰 撮影 李明雨 金振門 金貞主 李慶善 金蓮實 玄舜英 李素然 大共演 其他 發聲漫畵、뉴ー스

次週豫告 空前의大規模!無敵의豪華陣으로 劇團 藝苑座大公演

貫鐵町 電光三九五 優美館

廿八日より二十九日迄特別○畵週間 十時半、一時半、六時半

▲新興키네마五週年記念映畵 監督 村田實 主演 立松晃、露立のぼる

新月抄

▲新興키네마京都太奏招特作 監督 山內英三 主演 大谷日出夫 市川男女之助 鈴木澄子

兒也

▲朝日世界ニュース及北支事變特報 ▲讀賣發聲ニュース ▲豫告 三十日부터夜間에限하야劇團中央舞台特別公演 三十一日부터晝間에限하야十錢均一特別上映 今夏大衆娛樂映畵의大饗宴 寫眞(ニュ)短篇 科學映畵及喜劇漫畵等

經濟解說 世界經濟動向

伊太利統制政策 ⑧……李健赫

伊太利는 世界大戰前부터 入超過剩으로서 年年 四十億리라의 入超이엇스나 거의 同量의 貿易外收入이 잇서 간신히 收支均衡을 保하엿섯다 그러다가 大戰、世界恐慌을 經하야 伊太利의 貿易關係는 一途惡化로 轉하야 輸出의方途는 막히고 貿易外收入은 減少한데다가 軍備擴張의 世界的傾向으로 輸入貿易을 增加케 할뿐임으로 政府는 國際收支 發表를 禁하고 各種輸出獎勵 輸入制限政策을 講究하야 國際收支 改善에 努力한 結果 昨年부터 收支가 均衡케되고 今年初 國際收支統計를 公表키에 至하엿다

財政狀態도 支出은 依然增加를 示하나 收入增加는 發表치안튼바 今年度의 歲出額은 二百三十七億리라로하나 勿論 그것으로 充當할것이아니오 伊太利財政危機、公債消化限度가 切迫되엇슴을 示하고잇다。

×

昨年十月 리라切下時에 各個人에 對하야 不動產價格의 五%에 該當한 公債를 强制的으로 가지게하얏스며 五分利公債를 三分五厘로 法律로 引下하야 實質的으로 國債의 切下를 行하얏고 다시 引下하얏다。그뿐아니라 「에디오피아」戰爭에 際하야서는 國民이 所有한 外國證券을 强制的으로 빼앗고 同證券에 對하야서는 一切의 支拂을 停止하야 今日까지 그支拂停止로 因한 負擔이 加重되어잇다 輸出品 特히 絹絲、「올리브」油、水銀、紡績等은 모다 政府의 專賣로하고잇다。그리고 伊太利는 外部에 發表한 數字中 總額의 四分之一은 軍事費이다。

伊太利의 產業統制는 組合制度를 中心으로 行하고잇스며 生產統制는 原料品及 食料品關係의 自給自足制確立、軍事品關係의 獨立性確保를 二大方針으로하고잇는데 前者에 對하야서는 生產增加、代用品的 生產을 取하고잇다 그리하야 代用品의 研究는 世界에잇서 屈指의 隆盛을 示하고잇다한다。

×

貿易에잇서서는 輸出入許可制를 取하고잇는바 原料輸入에 際하야는 一個의 基本問題로 形成되어잇고 伊太利는 個人輸入에 依하야 一般工業資本家가 不滿이라는바 一九三六年度의 伊太利의 輸出入狀態는 如左하다

(單位百萬「리라」)

輸入		輸出	
石炭	[illegible]	綿布	[illegible]
綿花	[illegible]	人絹	[illegible]
機械	[illegible]	自動車	[illegible]
小麥	[illegible]	만도링	[illegible]
銅	[illegible]	果實	[illegible]
羊毛	[illegible]	生絲	[illegible]
石油	[illegible]	絹絲	[illegible]
其他	[illegible]	其他	[illegible]
總計	[illegible]	總計	[illegible]

伊太利는 國內에 金이 産出치안코 金準備는 入超로 外準備는 數年來 줄어 되어 그때문에 政府는 金準備額과 通貨流通高의 發表를 一昨年부터 禁止하고잇다가 今年二月에 公表된바 그 數字는 流通額이 一五○億리라 金準備金에限치안코 外國貨幣도 加하야 四○億리라로되어잇는데 이 四○億中에는 平價切下當時 準備高가 四割增加이것가리 되어잇다한다。

×

伊太利의 物價昂騰抑制策은 食料品關係는 그前부터 行하얏고 「리라」切下後는 一般物價에 對하야 物價委員會를 作成하야 公定價格을 發表하고 잇는데 物價統制는 困難케되어 [illegible] 「世界經濟動向」了

未開發鑛助成 金을强制買上
買上資金은評價益金中利用
「產金法」朝鮮에施行

特別議會에提出될 產金法의通過를기다려 總督府에서는 朝鮮에도 同法을制令으로써 施行할方針인데 그內容은거의 日本內地와同一하나 朝鮮의金山은 幼少年期에서 靑年期에入하야 一段活動이期待되며 또未開發도相當히多數에達함으로 此等特殊事情을充分히斟酌하야 保護助成에重點을두고 金의强制買上을 行코저하는것이다 買上資金은日銀法改正에伴한 再評價益金中에서 鮮銀이受入하야 利用하리라한다

東一銀行總會 陣容一新可決
河口專務 三谷常務就任

旣報와가티 東一銀行은 拔本塞源의 整理案을 세운바 陣容一新件을 附議할 第六十二期定期總會는 廿七日 午前十時十五分 同行會議室에서 株主卅二名(河口、三谷兩氏도 株主로出席)出席으로 閔會長司會下에 開會하얏다 먼저 閔會長으로부터 『本人이 昨年七月 總會에서 會長에 被選된以後 業績良化 行員待遇改善等에 努力하엿스나 日淺하야 効果가別로업섯슬뿐아니라 도리어 行內에不祥事가 續出하엿슴은 未安하다 現重役은 總辭職하고 鮮銀으로부터 力量手腕잇는사람을맛게되엿는데 本人도 當然히辭任하여야할일이나 本人의意思대로 되지안코 留任케된것을 諒解하라』는 인사가잇고 議事에들어가서 左記五案을附議하엿다

一、第六十二期營業報告書 貸借對照表 財產目錄及損益計算書承認件
二、第六十二期利益金處分案決議件
三、取締役市川寬次郞任期滿了、取締役成元慶、吳肇泳、閔圭植辭任에對하야 一名을 減員하고새로이取締役二名補缺選擧件
四、退任、辭任取締役에慰勞金贈呈件
五、役員報酬件

▲一號案에 들어가서 某株主로부터 總會通知手續이 遺漏이라는質問이잇섯스나 銀行側이適法이라答辯하고 一號案은可決 ▲二號案에들어가 某株主로부터 不祥事續出의 實損程度를못자 會長으로부터 世間에서 想像하는것가튼 巨額이아니라說明하고 이어서 朝鮮製絲 忠南製絲에對한債權回收에關하야 質問이잇섯는데 朝鮮製絲와는 爭訟中이요 忠南製絲에對하야서는 半期一萬五千圓식回收치는못하얏스나 今後回收에努力하겟다고說明하고原案可決 ▲三號案에 들어가 重役二名補缺選擧에入하야 李仁氏로부터 『東一銀行은 三十年의 傳統的歷史잇는銀行인데 重役二名外에 支配人支店長 主任其他行員等에大異動이잇던지 將來異動이 만흐면 對內對外關係로 惡影響이클것으로 銀行業績도 자미업슬것이니 異動有無와 그範圍를 알기前에는 重役補選에 入할수업다』는質問에 對하야 閔會長으로부터 『이번에 重役二名과 行員五名이 入行함에 伴하는 異動以外에는 今後異動이업슬것이다』고言明하얏고 會長指名에 依하야 取締役에 河口眞、三谷俊博兩氏가 被選되엇는데 卽時別席에서 重役會를열고 專務에 河口氏 常務에 三谷氏로 決定되엇음을 會長이 報告하얏다 ▲四號案에들어가 重役會에一任하되 될수잇는대로 少額으로 하라는條件을附하고 可決 ▲五號案에 들어가 從來一期二千五百圓이던것을 一萬二千圓으로 增額할件을附議한바 急速增額에對하야異論이잇섯스나 結局可決 이어서 河口新專務로부터 如左한인사가잇고 十一時二十分閉會하얏는바 利益金處分案은 如左하다

第六十二期利益金處分案

▲當期純益金七萬四千百八十圓十六錢 ▲前期繰越金一萬八千七十二圓十三錢 ▲合計當期利益金九萬二千二百五十二圓二十九錢 ▲法定準備金八千圓 ▲別途積立金一萬二千圓 ▲舊株配當金一萬二千圓(年三分) ▲第一新株配當金一萬六千八百七十五圓(年三分) ▲第二新株配當金一萬二千七百五十圓(年三分) ▲役職員退職慰勞基金五千圓 ▲役員償與金三千五百圓 ▲後期繰越金二萬二千百二十七圓二十九錢

營業方針은 傳統尊重
河口東銀專務談

東一銀行專務에 就任된河口眞氏는 如左히 總會席上에서 인사를말하얏다

淺學菲才이나 銀行의基礎를 鞏固히하기爲하야서는 粉身努力할터이다 財界는 時局關係로多事多端인此際에 金融에 關係함은 難事中의 難事이나 監督官廳과 當行과가장 關係가깁흔 諸位의 援助에 依하야 職責을 다하고저한다 今後當行의 行員異動이잇느냐는 問題는 우선五名을鮮銀으로부터 入行케하겟는데 이것은不得已한事情이니 諒解하여주기바란다 이에依하야 多少의異動은잇슬지모르나 될수잇는대로 範圍를 狹小케할터이며 將來도 될수잇는대로 異動치안흘方針이다 當行의營業方針으로서는 從來의 傳統的方針을尊重할수잇는대로 尊重하야研究한後實施하고저한다

鮮銀兩氏辭任發表

鮮銀에서는 二十七日附로써 河口、三谷兩氏의 東一銀行入行에 伴하야 如左히發令하얏다

依願解職(各通) 京城總裁席勤務 河口眞 三谷俊博

殖銀主要行員異動
(七月廿六日附)(括弧內는現任)

▲新義州支店長代理 木村徹郞(木浦支店長代理) ▲羅津出張所長代理 堺谷房太郞(羅津出張所長代理) ▲井邑支店長代理 江上成義(後橋派出所主任) ▲後橋派出所主任 渡邊來(順天支店長代理) ▲順川支店長代理 上田四郞(裡里支店長代理) ▲裡里支店長代理 中島數馬(大田支店) ▲鎭南浦支店長代理 林盛一郞(滿洲文店長代理) ▲滿洲支店長代理 赤木萬壽夫(木浦支店長代理) ▲木浦支店長代理 宮田錄(平壤支店) ▲本店勤務 豐田繁(城津支店長代理) ▲城津支店長代理 西澤正則(安州支店長代理) ▲安州支店長代理 鶴田穆(全州支店) ▲清津支店長代理 高橋武五郞(清津支店) ▲依願解職 木村達彦(新義州支店長代理) ▲依願解職 秋澤清治(鎭南浦支店長代理)

三割五分의 附加稅撤廢
關稅委員會서可決

大藏省에서는 二十二日 首相官邸에서 關稅調查委員會를 開催하고 特別議會에 提出할 軍需關係品及 生活必需品 約十種目에對하야 現行三割五分의 附加稅撤廢案을 附議可決하엿는데 軍需關係商品인 銅 鉛 錫이 그品目中에든것은 時局에 適宜한 措置라하겟다

×

往年의 銅輸出國이든 日本銅界도 現在는 도리혀 年三千六百萬圓以上을 輸入치안코는 안되며 鉛에잇서서는 依然히五百萬圓 乃至 二千七、八百萬圓以上의 輸入을보고잇는 狀態이다 그럼으로 銅의境遇는 現行附加稅는 百斤四圓八錢으로 그撤廢는 市價에 相當히 衝擊을 줄것이事實인데 昨今과가티 電銅市勢가 百二十六圓으로 昨年同期에比하야 約四十圓가량의 上騰임으로 製鍊業者에 그다지 痛擊은 주지안흘것으로 생각된다

×

一方 錫、鉛界에잇서서도 錫의 附加稅는 現在 百斤二圓十九錢으로 現市價 五百圓에對하야 그率은너무 輕微하며 또昨今과가티 波濤變則市勢續出의際에 僅二圓程度의 市勢가 當場市價에 反響을 喚起하엿다고는생각할수업다 또鉛의境遇에 잇서서도 百斤二十三錢의 附加稅로서 現在의 市價五十圓에 對하야 그率이 僅五厘程度의 比例임으로 이亦是 市場에 影響이 잇다하야도 輕微한것이다

이와가티 附加稅撤廢로 大局的立場에서 보면 斯業界에 反響되는일이 極히 微微한것이다 그런데 最近 此等諸品의 市中在庫는 銅은 이미 常備「스톡」三千噸이 漸減되야 더욱鑛鑄의 度를더하고잇스며 鉛 錫에 잇서도 同樣의 傾向이 深刻하다 自給自足이 아직遼遠한 現在의 此等商品界로서 今回의 附加稅撤廢案은 市勢安定策으로 適宜한것이라 보지안흘수업다 이關稅引下가 實施되는날에는 一時的으로 問屋及 製鍊業者가 打擊을 바들것을 認識하고잇스나 그後에오는 需給의 圓滑과 市價低下에依한 需要의增大가 豫想되는限 此際 조그만한 小利를버리고 關係業者의 遠大한認識이 必要할것이라한다

臺灣米專賣
砂糖政策으로立案
朝鮮엔도리어有利?

臺灣總督府의 米專賣制實施는 各方面의 注目을 끌은바 同制度의 實施에 對하야 總督府農林局에서는 左와如히 觀測하고잇다 正式通知가 업스므로 具體的方策은 알수업스나 今回實施될 臺灣總督府의 專賣制는 最近砂糖의 作付反別이 顯著히 減少의傾向에잇서 從來 砂糖을 栽培하든 田은 水田으로 變하고잇슴으로 國策上 砂糖의 栽培增加를 圖하는 見地에서 年貢收高의 平數에達하는 移出米에對하야 買上專賣를 實施코저하는 模樣으로 米穀統制上 見地에立脚하는 것이아니고 따라서 朝鮮에서밧는 影響도적다 或은 도리혀有利하지안흘가한다

寸鐵

○ 東一銀行總會는 緊張裡圓滿終了

○ 鮮銀에依하야革新되는것은조흐나 東銀의傳統을 이저서는안되고 함부로行員을 動搖시키지말라는 株主의希望은 當然又當然

○ 河口新專務도 株主希望대로 하겟다고 굿게約束햇스니 先安心

○ 明日의東銀 更生을期待할는지

今日의市勢【廿七日】

株式 不勢 前戾後低

前場反堅 北支는駐屯軍의 最後通告로 아직도緊迫狀態를 보이고잇서서 今朝寄付는 依然軟調로 東新一二十錢低 鐘新一圓七十錢低로 不勢裡에開場되엿스나 一部에는 形勢緩和說도 傳할뿐아니라 戰鬪가全面化한다하드라도 勝利가歸할것은 이미旣定되어잇다하여도 過言이아니라는 樂觀人氣로 低價買拾的行動이만허 市勢는寄付를 低價로反堅裡에推移되다가 東新一四六、四 鐘新一七四、四로前場을마치엇다

後場低落 後場은 鐘新一高、東新一高로少堅裡에 始場한後 다시軟派의 賣叩로再次落潮裡에 後場을마치엇다

積極買는尙早

北支事態의 益紛糾를보면서도 人氣는 反堅하야 事變惡化로 賣叩되는 低價를 買拾하려는傾向이 매우 濃厚하야 昨日에도低價를보이고는 下進모양을 보엿고 今朝에는 寄付를 低價로買進하는光景이라 이大勢樂觀人氣에 逆行하는것은 그다지큰 妙味가업다고하여 賣安心을 不許하는場面이라고 解釋할수잇스나 他方으로 생각하면 北支事變은 아직은 그다지 크게展開될것가지 안키는하나 支那側의 持久的態度로意外로 解決이 遷延되지도 모르며 遷延되면 될수록局部的衝突은 不絕할것이니 自衛權發動與否는 如何든 急速한解決이 업시는 急激한 回復은 難望이아닐까? 勿論 이외가티 되면 支那問題는 慢性化하야 人氣에 影響은 鈍化하야 큰影響은 업슬지모른다。

雜株는軟保狀

昨朝 一齊下放한 雜株도 形勢觀望裡에 今朝에는 거의保合이며 部分的으로는 [illegible] 東邦人造의 一圓低인三六、○○ 日本紡新의 五四、二○低인五○ 富士紡新의 三八、○○低인四○、○○ 東邦人造의 二九、五로 下放이며 朝鮮鍍錄은 二十八圓丁의 不變으로 底堅이엇다。北擴鑛도 七低인 六一、八로 鑛錄株는 軟保인데 [illegible]

實物前場取引

▲東洋拓殖 [illegible] ▲鐘紡 [illegible] ▲滿洲煙草 [illegible] ▲北樺太石油 [illegible] 이며 同新은 二圓○五錢 九二、○ 二○四、五로 七十七錢丁이엇다

國債反落 北支惡化

【東京電】 北支情勢의 再惡化로 金融市場의 豫想이 困難하게되어 嫌氣賣分이 續出하야 三分半은 日興의 買中止와함께 二十五錢低를 告하엿다 日銀總裁에 結城氏就任을 傳하얏스나 도모지刺戟이薄이엇다 ▲甲五分利 一○一五五 ▲二回四分利 一○二○○ ▲佛貨 一九六○○

期米 高寄後에崩落

前場反弛 今朝는 雨天으로 阪地初節三十三圓九十一錢인五丁反落을 押하고 當限은一圓五十錢인九丁 中은二圓七十五錢인八丁低로 先限은意外買進으로 卅二圓○八錢인 反히三丁高로寄給한後 阪地八十四錢으로 反落할을때 一圓九十四錢까지 下押하엿다가 阪地九節九十錢으로反高할을伴하야 七節九十八錢으로 結局阪止八十八錢을보고 九十六錢에止場하다

後場暴落 後場은 東北地方作況良好를 傳하야 三十一圓七十七錢인十九丁低로 始場한後 三節六十六錢으로 暴落되엿다 [illegible]

硬派의主張點

今月中 市勢의 步調는 一百四十丁의 暴落을 示한後 百七十餘丁의 反撥을 告하고서 [illegible]

軟派의主張點

植付以來의 上順氣는 到底同樣으로 天下人心이 모두 豐作氣分으로 朝鮮도 植付半作이란 例言에依하야 足히豐作을 豫期할수잇스며 一方內地는 今後颱風時期가 憂慮되는바이나 此는 未知數이므로 별서부터 [illegible] [illegible]

市場六感

株…昨日의一押과 今朝의 寄付低는 北支事變을 憂慮하는것이엇스나▲低價買氣는 嚴烈하야 低價만보이면 買進하는光景▲처음부터 深押을期待한것이아니므로 失望이랄것도 업스나 整理다운 整理업시 再進하면 壽命이 疑問인것▲그러나 如何間 實安心할時期는 지낫다고 보는것이 公當치안흘까? ▲下値商賤으로 보는편도 잇스니 飛付를랑하지 마소마는 低價待買는 大體安心일듯 (金剛城)

米…昨夜에도北支의一部衝突이생기어 아직全面化하지는 안엇스나 米界人으로서 安心할수업는걸▲今朝에入하야 支那軍의態度가 幾分緩和하야 妥協된兆朕이잇다고 某消息通은 傳하고잇고 그래서株式은若干올으고 米價는 小落되엇스나 油斷할수업는時期▲今回의 颱風의程度로봐서도 오히려農作物除의程度로 無事히通過하고말엇다고▲그러치만 開花期와結實期에入하야 어떠한作用을 할지 安心하지못할가을解禁! (華山)

仁川在米減少

【七月廿四日】 現仁川在庫米는 前週에比하야 減少를示하엿는데 [illegible] ▲玄米四斗入九四、三七二叺▲白米四斗入一、一九三叺 五斗入六叺▲正租二、六八叺 ▲大豆三四叺 [illegible]

正米 定期不振 低落

京城軟調

今朝定期不振으로 正米는 이에따라 十五錢低로 軟調를 告하엿스나 [illegible]

仁川軟化

[illegible] 四○ 四等三二、一○ 一等白米二四、五○

釜山奔落

頃來의 超好順으로 [illegible]

大邱落調

[illegible]

木浦反弛

[illegible]

群山崩落

[illegible]

今日財界日誌

◆米 [illegible]
◆株 [illegible]

朝取期米取組內容

[illegible]

海外經濟

[illegible]

銀行券

◆日本銀行券◆ [illegible]
◆朝鮮銀行券◆ [illegible]

手形交換·金利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鰯油粕·麥粉

◆阪神鰯粕◆ [illegible]
◆阪神鰯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illegible]
◆東京金銀價◆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正米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正租

[illegible]

雜穀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雜穀◆ [illegible]

綿絲布

◆京城紡績製品◆ [illegible]
◆京城綿絲布市勢◆ [illegible]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illegible]

株式

◆朝取短期◆ [illegible]
◆短期主要取組高◆ [illegible]
◆實定代引日步◆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期米

◆朝取期米◆ [illegible]
◆朝取期米賣買高◆ [illegible]
◆釜山期米◆ [illegible]
◆大邱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木浦期米◆ [illegible]
◆群山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京城物價(廿七日)

[illegible]

砂糖

◆大阪砂糖◆ [illegible]
◆東京砂糖◆ [illegible]

生絲

◆橫濱生絲◆ [illegible]

人絹

◆各地人絹◆ [illegible]

棉花

◆大阪棉花◆ [illegible]

綿絲

◆大阪綿絲◆ [illegible]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東
株式 期米 玉 柳來恒取引店 京城黃金町 仁川本町
益 京城 仁川 金益證券 益康
期米·株式部·證券部·京城·仁川 福 吉村取引店